

설문대할망 설화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문 영 미



411
2121

설문대할망 설화 연구

지도 설 성 경 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1998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문 영 미

문영미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년 12월 일

차 례

<국문 요약>

I. 서론

| | |
|-----------------------|---|
| 1. 연구목적과 연구사 검토 | 1 |
| 2. 연구방법과 연구자료 | 4 |

II. 설문대할망 설화의 유형 분류와 의미

| | |
|--------------------------|----|
| 1. 설화의 유형 분석 | 8 |
| 2. 유형담과 전승 지역의 증거물 | 10 |
| 3. 자료의 각편 정리 | 12 |

III. 유형담의 형태와 의미

| | |
|--------------------------|----|
| 1. 행위담 | 17 |
| 1.1. 지형 형성 | 17 |
| 1.2. 발뻘고 잠자기 | 24 |
| 1.3. 한 걸음에 섬 가로지르기 | 26 |
| 1.4. 빨래하기 | 27 |
| 1.5. 사냥·고기 잡기 | 31 |
| 1.6. 連陸橋놓기 | 33 |
| 1.7. 키자랑·죽음 | 40 |
| 2. 증거담 | 47 |
| 2.1. 족두리석 | 47 |
| 2.2. 솔걸이 | 49 |
| 2.3. 등경석 | 50 |

IV. 설문대할망 설화의 변이 유형과 의미

| | |
|------------------------|----|
| 1. 행위의 주제가 바뀐 유형 | 53 |
|------------------------|----|

| | |
|-----------------------------|----|
| 1.1. 지형 형성 | 54 |
| 1.2. 솔바리 | 57 |
| 1.3. 등경석 | 59 |
| 2. 다른 설화의 화소로 바뀐 유형 | 60 |
| 2.1. 오백장군 설화 | 60 |
| 3. 변이 유형의 의미 | 65 |
| 3.1 행위의 주체가 바뀐 유형 | 65 |
| 3.2. 다른 설화의 화소로 바뀐 유형 | 66 |

V. 설문대할망 설화의 문학적 변용

| | |
|----------------------|----|
| 1. 전래 동화에서의 양상 | 67 |
|----------------------|----|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차

| | |
|--------------------------------|----|
| [표1] 유형담의 관련 증거물 | 10 |
| [표2] 종합 자료와 개별 자료의 비교 | 12 |
| [표3] 지형 형성 각편 분포 | 18 |
| [표4] 발뻘고 잠자기 각편 분포 | 24 |
| [표5] 한 걸음에 섬 가로지르기 각편 분포 | 26 |
| [표6] 빨래하기 | 27 |
| [표7] 사냥·고기 잡기 각편 분포 | 31 |
| [표8] 連陸橋놓기 각편 분포 | 34 |
| [표9] 키자랑·죽음 각편 분포 | 40 |
| [표10] 족두리석 각편 분포 | 48 |
| [표11] 술바리 각편 분포 | 49 |
| [표12] 등경석 각편 분포 | 51 |
| [표13] 지형 형성 변이형의 각편 분포 | 54 |
| [표14] 술바리 변이형의 각편 분포 | 57 |
| [표15] 등경석 변이형의 각편 분포 | 59 |
| [표16] 행동 주체의 변이 비교 | 65 |

그림목차

| | |
|---------------------------------|----|
| [그림1] 증거물의 지역 분포 | 11 |
| [그림2] 지형 형성 각편 분포 | 13 |
| [그림3] 발뺀고 잠자기 각편 분포 | 13 |
| [그림4] 한 걸음에 섬 가로지르기 각편 분포 | 14 |
| [그림5] 빨래하기 각편 분포 | 14 |
| [그림6] 사냥·고기 잡기 각편 분포 | 15 |
| [그림7] 連陸橋놓기 각편 분포 | 15 |
| [그림8] 키자랑·죽음 각편 분포 | 15 |
| [그림9] 족두리석 각편 분포 | 15 |
| [그림10] 솔바리 각편 분포 | 16 |
| [그림11] 등경석 각편 분포 | 16 |

국문 요약

설문대할망은 제주도를 만든 女神이다. 한라산, 오름, 섬, 奇巖 등 실질적인 제주 지형을 만든 天地開闢神話의 主神이며 민간신앙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현재 신화의 신성성을 상실한 지역 전설과 민담으로 향유되고 있다. 전승 양상 또한 간단한 일화들의 나열로 그쳐 짧고 간단한 일화는 섬 전체에서 지역에 맞게 재창조되어 일화들 간에는 서술을 갖춘 줄거리가 없다.

이 같은 설화 자체의 특성은 설화의 신화적 의의, 신화의 전설화 과정, 거인설화 등 설화의 일반적인 특성만이 연구 성과로 집중되었고 설화 자체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는 지역 전설로써의 전승 가치와 의의를 살펴봄으로써 설문대할망 설화 자체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각 유형담이 갖는 지역 전승 양상과 의의를 검토하고 지금도 이뤄지는 지역 변이 양상 그리고 문학으로서의 변용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각편들을 일정한 유형담으로 분류하였다. 분류 기준은 설화 전승 요인이 할망의 행위이나, 아니면 단지 증거물이나에 따라 ‘행위담’, ‘증거담’으로 나뉘고 10가지 하위 유형담을 분류할 수 있었다. ‘지형형성’, ‘발뺏고 잠자기’, ‘한 걸음에 섬 가로지르기’, ‘빨래하기’, ‘사냥·고기 잡기’, ‘連陸橋놓기’, ‘키자랑·죽음’ 그리고 ‘모자’, ‘술바리’, ‘등경석’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각 유형담의 전승 의의와 가치를 제주도의 역사, 지리, 기후, 취락 등을 고려하며 검토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連陸橋놓기’는 설화의 대표적 전승 유형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도 전체에서 채록, 최다 빈도 수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連陸橋놓기는 구연자에 따라 설화 인식이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 긍정적인 경우, 설문대할망이 다리를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환

난으로부터 제주를 지킬 수 있었다고 자족하는 반면, 부정적인 인식은 설문대할망의 교만한 성격으로 끝내 자신의 키보다도 작은 산정호수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즉, 巨神의 신성함은 사라지고 인간적인 죽음으로 인식될 뿐이다.

변이를 일으키는 변이유형으로는 ‘지형 형성’, ‘솔바리’, ‘등경석’, 그리고 ‘키자랑 · 죽음’이 있다. 이들 변이중 행위의 주체자인 설문대할망이 옥황상제, 해님, 장군 등으로 바뀌면서 비현실적 여성거인이 민간신앙과 현실적인 힘을 갖는 민간영웅으로 대체되거나 오백장군 설화처럼 설문대할망이 장군들의 어머니 화소가 되어 아들들을 무속의 오백장군, 불교의 오백나한이 되게 함으로써 물장오리에 빠져 죽은 할망이 무속의 산신, 불교의 매개체로 부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문대할망이 문학으로 변용된 대표적인 예는 아동 전래 동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래 동화의 특성상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고자 작가는 나름의 설화 인식과 상상력을 갖고 서사적 줄거리로 재편성한다. 그런데 전래동화에서 역시 ‘連陸僞농기’와 ‘키자랑 · 죽음’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민에게 설문대할망은 복합적 의미로 전승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대할망은 수호신적 존재와 더불어 다리놓기를 중단해버린 지리적 장애로 태어난 양면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 서론

1. 연구 목적과 연구사 검토

설문대할망은 제주도를 만든 여신이다. 한라산, 오름, 섬, 기암 등 실질적인 제주 지형을 만든 천지개벽신화의 巨神이며¹⁾ 민간신앙의 대상이었다²⁾.

그러나 구전 운문이나 제의가 전하지 않고 있어 제주 풍속에서 신성과 신화적 전승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신화에서의 이탈은 현재 전설, 민담화 경향으로 남아 있다. 설문대할망 설화는 내용 자체가 자연 지명 유래담이 많고 대부분 증거물을 제시하고 있어 전설의 일반적인 성격³⁾이 강하다. 따라서 설문대할망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 등 여러 층위가 혼합되어 전한다.

그러나 설문대할망은 신화로써의 전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반면 제주 전 지역에서 구전 전승되어 제주도 사람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알고 있

1)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1~12쪽.

2) 或起拜漢拏而祝曰 白鹿仙子 治我治我 洗麻仙婆 治我治我 盖耽拏之人 諺傳仙翁騎白馬 有于漢拏之上 又傳 古之初 有洗麻故 步涉西海 而海遊漢拏云 故今者 所以 祈治於洗麻 (初五日條) 「漂海錄」

조선 영조 46년, 제주인 장한철이 과거에 응시하려고 배를 탔다가 태풍을 만났다. 표류하던 중 멀리 한라산이 보이자 船人들이 '白鹿仙子'와 '洗麻仙婆'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한다. 洗麻仙婆, 洗麻姑는 설문대할망의 한자어 표기며 탐라사람들이 옛날부터 믿었던 신앙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張漢喆(김병욱역), 『漂海錄』 범우사, 1976, 76~77쪽 참조.

3) 관점에 따라 자연전설, 기인설화로 보기도 한다. 현용준은 『제주도전설』(서문당, 1976)에서 전설을 자연전설, 역사전설, 신앙전설로 나누었고, 설문대할망 설화는 山岳, 島嶼, 池沼 등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자연전설로 분류하였다. 허춘은 『한국문학의 통시적 연구』(집문당, 1993)에서 기인설화의 특이한 예로 소개하였다. 즉, 설문대할망 설화는 신화적 속성보다 현 전승 현장을 중시한 전설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설문대할망에 대한 논의는 60~70년대 장주근, 임동권, 장덕순 위주의 소
논의로 시작되었다.

장주근⁴⁾은 채집한 설화를 학계에 처음으로 소개했으며 일찍이 설문대할
망 설화를 천지창조신화의 일환으로 보고 다른 나라 거인신화와의 연관선상
에 있음을 밝힌 후, 특히 제주에서 일본으로 전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임동권⁵⁾은 설문대할망 설화를 육지 巨女談이 지역 향토화 과정을 거쳐
전설, 민담화 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설화의 전승 현장을 주목하였다.

장덕순⁶⁾은 설문대할망이 다른 나라 거인설화의 예와 달리 자연적 위력으
로서 신으로 숭상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연에 희생당하고 마는 점⁷⁾을 두고
기형적인 거인신화로 보았다.

이상 논의는 다른 거인담과의 연관성, 신화의 전설, 민담화 등 설문대할망
설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구가능성을 넓혀 주었기에 소중한 의미를 갖는
다. 그후 선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재영, 이성준, 강진옥, 허춘 중심으로 설
문대할망의 존재 의미 연구가 이뤄졌다.

소재영⁸⁾은 제주의 지배신화로써 의식의 상층부에 있는 靈山 한라산과 천
지창조 신화로서 巨神 설문대할망의 연관성을 제시하였다.

이성준⁹⁾은 변이 추적 결과 설문대할망은 원래 창조신이었으며 1950년까지
산신굿에서 사설되어 온 산신이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창조신을 구체적인

4)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 『한국문화사대계』 V,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67.

—— 「제주도 천지창조설화의 문화 영역성」, 『제주도』 38호, 1967.

—— 『풀어 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8.

5) 임동권, 「설문대할망 설화考」, 『제주도』 17, 1967.

6) 장덕순, 『한국사상대계』 I,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1973.

7) 설문대할망은 물장오리(산정호수)에 빠져 죽었다.

8) 소재영, 『한국설화문학연구』, 숭실대학교출판부, 1984.

9) 이성준, 「설문대할망 설화연구」, 『국문학보』 10호, 제주대학교 국문학과, 1989.

산신으로 파악하여 설문대할망 설화 논의의 진전을 가져오게 했다.

강진옥¹⁰⁾은 巨女 ‘마고할미’는 한국 고대 창조적, 생산 신적 여신이었으나 역사적 상황에서 굴절 변모되어 왔음을 논하며 설문대할망을 신성을 갖고 있는 대표적 창조신으로 보았다.

허춘¹¹⁾은 설문대할망 설화를 제주에 산재해 있는 奇人설화의 특이한 예로 보았다. 설화 내용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논의의 중심으로 삼았으며 육지의 거녀설화와 차별성을 주장하고자 했다. 무엇보다도 허춘은 설문대할망 설화 내용 파악에 가장 선두적 역할을 하였다.

이밖에도, 거녀담의 일환으로서 포괄적인 거인설화의 연구성과가 김영경, 권태효에 의해 논문화되었다.

김영경¹²⁾은 처음으로 거인설화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설화 자료를 행위중심형과 외모중심형으로 구분하고 모티프를 분석하여 거인 모티프들의 변모 양상을 제시하였다.

권태효¹³⁾는 거인신화의 전설, 민담화 과정을 통시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거인설화가 갖는 창조신화적 본질을 확인하고 변모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변이형의 창출을 제시하였다. 권태효는 그 동안 학계에서 문제 제기에 그쳤던 거인설화에 대한 제 문제를 폭넓은 자료의 검토로 논의 화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설문대할망 설화는 거인설화의 신화적 본질 그리고 희화된 형태와 의미 논의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설문대할망의 신화적 의의와 신화의 전설화 과정, 거인설화에 집중되어 정작 설문대할망 설화의 한 축인 전설로서의 면모에 대해선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주인이 설문대할망 설화를 거

10) 강진옥, 「‘마고할미’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 25호, 1993.

11) 허춘, 「설문대 할망 설화 논고」, 『한국문학의 통시적 성찰』, 집문당, 1993.

12) 김영경, 「거인설화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0.

13) 권태효, 「거인설화의 전승양상과 변이 유형 연구」, 경기대 박사논문, 1997.

녀전설로 향유하는 것과 연구 관점, 성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다만 허춘의 대략적인 내용 개관이 있었을 뿐이다.

구전산문의 가치는 생활에 뿌리를 둔 삶의 현장에서 구전, 재창조된다. 즉, 구전 전승되고 있다는 것은 과거 전승이든 현 전승의 현장에서든 그 가치와 효용은 삶과 연관짓기 마련이다. 전설이란 특이한 자연이나 역사적인 인물, 사건 등에 대해 사실로 믿고 설명하는 이야기로서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물로 설명한다¹⁴⁾. 설문대할망은 증거물과 더불어 지역전설로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구전 설화 전승과 재창조의 주체인 제주인에게 설문대할망은 어떤 가치와 인식으로 자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현 전승 양상은 어떠한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논의를 세 가지로 나눠 전개하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각편 자료를 분석하고 설문대할망 설화를 유형 별로 분류하고자 했다. Ⅲ장에서는 유형 분석 결과 얻을 수 있는 유형담을 순서대로 제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전승 의의를 살펴 볼 것이다. Ⅳ장에서는 Ⅱ장의 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변이형을 찾고 변이가 갖는 지역 전승 의미를 검토할 것이며 V장은 설문대할망 설화의 편집, 수용을 아동 전래 동화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과 연구자료

그 동안 설문대할망 설화 연구가 미진했던 이유 중 하나는 설화가 간단한 행위담으로 전하기 때문에 시련 등 서사적 사건이 없다는 것이다¹⁵⁾. 짧고 단편적인 행위담은 섬 전체에서 지역에 맞게 재창조되고 있어 각각의 연결고리가 없다. 따라서 설화 자체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설화를 적절한 기준

14) 현용준, 앞의 책, 292~293쪽.

15) 조동일, 「신화의 유산과 그 변모 양상」, 『우리 문학과 만남』, 홍성사, 1978.

에 의해 하위유형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장주근¹⁶⁾은 가장 먼저 할망의 크기, 할망이 한 일, 기타로¹⁷⁾ 유형을 분류하였고, 김영경은 장주근의 연장으로써 보다 단순화 전개한 외모중심형, 행위중심형으로 기준화하였다.

그러나 김영경은 죽음의 문제 등을 분류에서 제외하여 모든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였으며 외모와 행위로 二分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듯하다.

따라서 모든 설문대할망 설화 자료를 포괄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모든 각편을 대상으로 일화 중에서도 비슷하거나 공통점이 있는 것끼리 묶어 보았다. 결국, 모든 유형담은 할망의 ‘행위’를 증거와 함께 제시하느냐, 아니면 행위는 점차 전승 요건에서 소멸하고 ‘증거’만 남아 전승되느냐로 유형을 나눌 수 있었다. 이 같은 기준은 ‘움직이고 멈추기’의 하위유형인 ‘거인 움직이고 자취 남기기’로¹⁸⁾ 설문대할망을 유형 분류하였듯이 거인의 행위와 증거물이 분류에서 중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같이 전승 요인이 할망의 행위냐 아니면 증거냐에 따라 각편을 나눌 경우 앞의 논의에서 문제가 되던 할망의 죽음, 희화된 민담 등 모든 유형담을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설문대할망 유형담을 행위 위주의 일화와 증거 위주의 일화로 구분하여 ‘행위담’, ‘증거담’으로 분류 사용하고자 한다.

II장은 이 같은 유형담의 정리를 목적으로 하며 자료의 분석 결과로 얻어질 것이다.

16) 장주근, 『한국의 신화』, 앞의 책.

17) 큰 키에도 불구하고 설문대할망이 산정호수에 빠져 죽은 일화를 기타로 분류하고 있듯이 죽음을 할망의 외모 크기나 한일과는 별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조동일, 『한국구비문학대계(이하 대계로 약함) 별책 부록』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1989, 490~491쪽.

제주 설화 수록집은 50년대 말 진성기의 『남국의 전설』¹⁹⁾을 시작으로 학계의 꾸준한 관심으로 90년대까지 방대한 양이 채집되었다. 이들 채집 자료는 학계 위주로 이루어져 비교적 설화의 신빙성이 높은 편이다. 본 논의를 위한 자료는 구연지와 구연자가 명확하게 제시된 것만을 대상으로 했다.

학계의 지역보고서인 『한국구비문학대계』²⁰⁾, 『제주설화집성』²¹⁾, 『백록어문』²²⁾, 『국문학보』²³⁾ 개인 학술서인 『한국의 신화』²⁴⁾ 그리고 설화집중에는 『제주도전설』²⁵⁾과 『한국구전설화』²⁶⁾를 대상으로 한다.

Ⅲ장에서는 전승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설화의 변이 양상과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지역 전설을 늘 가까이 접하는 지역민의 전설을 바라보는 의식도 변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증거물과 연관지어 일어나는 설화 변이를 찾아보는 것은 지역민의 설화 변이 의식을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변이는 10가지 유형담 중에서 행동 주체가 바뀌거나 설화 유형이 달라지는 경우²⁷⁾를 검토함으로써 변이 양상과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변이 자료는 제주의 마을 시리즈²⁸⁾와 향토지를²⁹⁾ 주 대상

19) 진성기, 『남국의 전설』, 박문출판사, 1957. 이 자료는 채록 설화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구연자와 구연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본 논문의 의도와 맞지 않기에 자료화하지 못했다.

20) 현용준·김영돈, 『구비문학대계』 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구비문학대계』 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이하 정문연으로 약하고자 함)

21) 현용준·김영돈·현길언, 『제주설화집성』 (1),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5.

22) 『백록어문』 10, 11, 제주대 국어교육과, 1994, 1995.

23) 『국문학보』 10, 12, 제주대 국어국문학회, 1989, 1994.

24) 장주근, 앞의 책.

25) 현용준, 앞의 책.

26)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9, 평민사, 1992.

27) 그 동안 거인 설화에서 다루었던 주요 변이는 巨女談이 영향을 준 설화로써 아기 장수, 힘센 할머니, 오뇌 힘내기 등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후속 영향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앞서 구전산문이 구전 과정 속에서 어떻게 설화 자체내의 변이를 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으로 한다. 관 위주 편찬이 기존 설화집을 재 수록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일반 민간 주도하에 발행된 마을지, 향토지 그리고 마을 시리즈에서는 그 지역에 구전하는 설화를 지역민의 시각으로 수록하고 있어 설화의 또 다른 변이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다.

Ⅲ장, Ⅳ장에서 중시된 것이 10가지 행위담, 증거담이었다면 V장에서 논의될 내용은 서술을 갖춘 이야기의 구조다. 구전설화를 문헌설화로 재구성하는 제주인의 의식을 찾아보고 각편인 설화를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하고 있는 제주인이 만든 몇 편의 이야기 속에서 현대의 제주인이 바라보는 설문대할망에 대한 바람, 희망 그리고 원초적 전승의 정신적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대할망 설화의 재 구성력을 두드러지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아동동화이므로 자료는 제주 출신 작가들의 동화중 이야기 구조를 갖춘 『제주도 이야기』 230), 『민족전래동화』 631), 『제주도전래동화』 32)를 주 자료로 삼았다.

28) 오성찬, 『제주의 마을 시리즈: 애월리』, 반석출판사, 1987.

29) 『성산』, 성산 국민학교, 1987.

『오라』, 오라 국민학교, 1987

『사계』, 사계 국민학교, 1987.

30) 현길언, 『제주도이야기』 2, 창작과비평사, 1984.

31) 장영주, 『민족전래동화』 6, 아동문예, 1991.

32) 박재형, 『제주도 전래동화』, 대교출판, 1990.

Ⅱ. 설문대할망 설화의 유형 분류와 의미

1. 설화의 유형 분석

설문대할망은 예전부터 제주도에 살고 있었던 키가 대단히 큰 巨神이었다. 할망의 큰 외모와 힘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일화들이 설화의 주 내용이다. 구연자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생각나는 대로 일화 중 몇 가지를 나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話者들의 구연은 설화 자체 특성상 서사적 줄거리가 없기 때문에 내용 분석을 위해선 먼저 각편인 일화들을 일정한 유형담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각편인 일화들 중 관련이 있는 내용을 묶어 간단한 문장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³³⁾.

- 1) 한라산과 오름은 설문대할망이 흙을 나르다가 만든 것이다.
오즘을 싸자 내를 이뤄 땅이 섬이 되었다.
- 2) 한라산을 베개 삼아 누우면 발은 바닷가에 닿았다.
- 3) 한 걸음에 섬을 가로지르거나 육지로 갈 수 있었다.
- 4) 제주 섬을 다리 사이에 두고 넓은 바닷물에서 빨래를 했다.
- 5) 설문대하루방과 부부가 되어 사냥, 고기잡이를 했다.
- 6) 옷 한 벌을 지어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주마 사람들과 약속했다. 그러나 옷감이 모자라 옷을 완성할 수 없게 되자 할망은 다리를 놓다가 말았다.

33) 논의를 위해 일정한 서술 고리가 없는 내용을 임의대로 재구성, 간단한 문장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1) - 10)은 개별적인 내용이며 순서상의 의미는 없다.

7) 물깊이를 모르고 키 자랑하러 물장오리³⁴⁾에 들어갔다 빠져 죽었다.

8) 빨래할 때 머리에서 떨어진 모자가 남아 있다.

9) 밥을 지을 때 사용하던 숟갈이가 남아 있다.

10) 옷을 지을 때 쓰던 등잔이 남아 있다.

1)-7)까지는 할망의 구체적인 행동을 개별 정리한 행위담이며 8)-10)까지는 행동보다는 남아 있는 증거 위주의 전승을 모아 놓은 증거담이다.

설문대할망은 거녀전설로 인식되어 전승되므로 전설의 기본 요건인 증거물이 중시된다. 증거물은 설문대할망의 큰 키와 거대한 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승 지역에서 잘 알려진 오름, 섬, 奇巖을 내세우고 있어 유래담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그러나 특정 일화들 중에는 할망의 행위는 거의 전승에서 사라지고 증거담만 남아 있기도 하다.

8)-10)이 증거물 위주의 전승인 증거담에 해당한다. 빨래하고 밥짓고 바느질하는 설문대의 생활담은 전승에서 사라져가고 사용하던 족두리석, 숯바리, 등경석만이 전승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의 논의는 유형담 위주의 분석과 변이 양상 연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편의상 10가지 유형담을 1) 지형 형성, 2) 발뻘고 잠자기, 3) 한 걸음에 섬 가로지르기, 4) 빨래하기, 5) 사냥·고기 잡기, 6) 連陸橋놓기, 7) 키자랑·죽음, 증거담으로 8) 족두리석, 9) 숟갈이, 10) 등경석으로 명사화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34) 한라산 서남쪽 국립공원에 있는 오름이며 산정에는 둘레 1500m의 호수인 ‘창터진 물’이 있다. 호수 밑바닥이 뚫려 있다는 말로 설문대할망이 빠져 죽었다 전한다.

2. 유형담과 전승 지역의 증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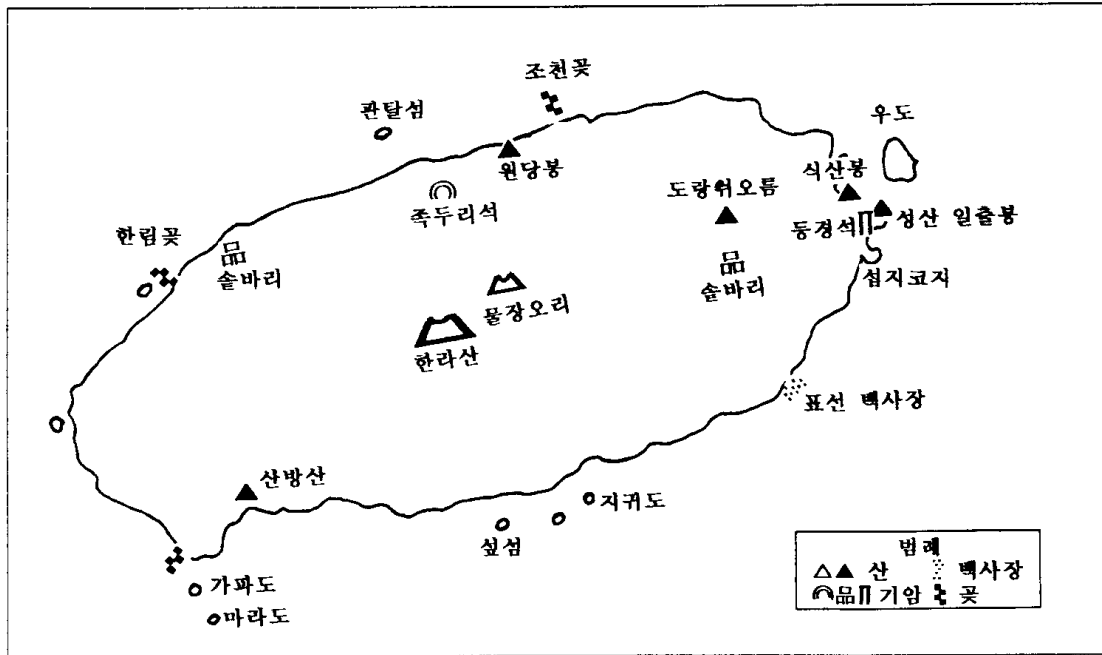
1.설화 유형은 ‘행위담’, ‘증거담’으로 나누었지만 행위나 증거나 하는 것은 전승 비중의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모든 유형담에는 전승 지역에서 잘 알려진 지명, 섬, 오름, 기암 등이 증거물로 제시되기 마련이다. 10가지 유형담과 관련된 증거물을 [표1]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유형담의 관련 증거물

| 유형담 | 관련 증거물 | 비고 |
|---------------|--|--|
| 지형 형성 | 한라산, 도랑쉬오름, 원당봉, 우도 | 한라산, 대부분의 오름들 |
| 발뻘고 잠자기 | 한라산, 쇠섬, 관탈섬 | 한라산, 제주시, 서귀포시 앞 바다에 있는 섬 |
| 한 걸음에 섬 가로지르기 | 한라산, 표선 백사장, 산방산, 추자도 | 한라산과 전승 지역의 대표적 지형물 |
| 빨래하기 | 한라산, 관탈섬, 추자도 일출봉, 식산봉, 우도 산방산, 마라도, 가파도 | 한라산 제주 앞바다, 제주 서쪽 그리고 태평양 쪽 바다에 있는 섬들 |
| 사냥·고기잡기 | 한라산, 섬지코지 | 한라산, 성산 |
| 連陸橋놓기 | 조천, 한림, 모슬포의 곳 표선 백사장 | 북제주군의 여러 곳 표선 |
| 키자랑·죽음 | 물장오리 | 한라산 서쪽 등성 산정호수 |
| 족두리석 | 제주시 한천 지경 기암 | 모자형 기암 |
| 술걸이 | 곽지, 애월 지경 기암 송당지경 기암 | 品字形 기암 |
| 등경석 | 성산 일출봉내 기암 | 겹바위형 기암 |

[표1]의 유형별 증거물을 지역적 분포로 [그림1]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 증거물의 지역 분포



설화의 증거가 되는 지형, 지물은 한라산, 오름, 섬, 奇巖 등이었으며 특히 주 증거물은 오름과 섬들이다.

증거물로는 단연 한라산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으며 특히, 제주도내 북쪽과 동쪽에 집중 분포해 있다. 한라산은 제주의 상징물으로써 제주도 어느 위치에 있든지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가장 높고 큰 대상이기에 할망의 거대한 외모를 형상화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시와 성산을 잇는 북, 동쪽 지역에 증거물이 편중된 분포를 보이는 것은 설문대할망 설화가 제주도 전역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일반적 학설과 달라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설화 자체가 제주 북, 동쪽 위주로 한정 채집될 수 있으며 구연자는 자신이 잘 아는 이야기를 구전하므로 구연 지역 전승물 위주로 이야기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설화 채집 현황과 증거물 분포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언급은 3.‘자료의 각편 정리’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3. 자료의 각편 정리

해당자료³⁵⁾는 『제주도전설』, 『한국구비문학대계』 9-1,9-2, 『제주설화집성』 (1), 『국문학보』 10,12, 『백록어문』 10,11, 『한국구전설화』, 『한국의 신화』이다.

그런데 이 중 『제주도전설』, 『한국구전설화』, 『한국의 신화』는 여러 지역에서 채록된 다양한 일화를 편집 수록하여 전체적인 설화 전승 현황을 알 수 있으나 나머지 자료는 한정된 특정 지역에서 구연자들이 지역 전승물 위주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설화 전승의 전체적인 양상을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료 분석시 전 도적 자료 분포를 보이는 종합자료와 개별 전승만을 다룬 개별 자료는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

종합자료인 『제주도 전설』, 『한국구전설화』, 『한국의 신화』의 구연자는 모두 17명이며 나머지 개별 자료의 화자 8명이다. 분포를 [표2]에서 비교 제시하였다.

[표2] 종합 자료와 개별 자료의 비교

| 지역 | 종합 | 개별 | 합 | 지역 | 종합 | 개별 | 합 |
|---------|----|----|---|---------|----|----|----|
| 제주시(북) | 3 | 2 | 5 | 안덕면(남서) | 3 | 0 | 3 |
| 서귀포시(남) | 2 | 0 | 2 | 대정읍(남서) | 0 | 0 | 0 |
| 조천읍(북) | 0 | 1 | 1 | 한경면(서) | 1 | 0 | 1 |
| 구좌읍(북동) | 2 | 2 | 4 | 한림읍(북서) | 1 | 0 | 1 |
| 성산읍(동) | 1 | 2 | 3 | 애월읍(북) | 1 | 1 | 2 |
| 표선면(남동) | 3 | 0 | 3 | 합계 | 17 | 8 | 25 |

35) 제주도 내에서 설문대할망 설화는 도, 시, 읍, 리지 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관 위주 발생 서적에서 설화 부분은 대부분 선학들의 초기 채록을 재 서술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고의 조사에 의하면 도내 발간 도서는 주로 현용준의 『제주도 전설』(1976), 제주도외는 장주근의 『한국의 신화』(1961)를재인용, 편집 소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설문대할망 설화의 유형분류와 의미 분석을 위한 자료는 구연자와 구연지 등이 확실한 자료인 학계 위주의 자료에 한정하고자 한다.

[표2]에서 보듯이 종합, 개별 자료 둘 다 우세하게 채록된 것은 제주시, 구좌읍, 성산읍으로 제주 북, 동쪽 위주로 채록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료로 설화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자료 부족의 한계성이 있다. 따라서 [표1]에서 보여주는 제주시, 구좌, 성산 위주의 전승이 제주도에 전승하는 설문대할망 설화의 전승 현황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그러므로 10가지 유형담이 채록된 지역을 다시 세분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전승 가능할 각편이 채록에서 제외되었는지, 아니면 그 지역에 전승물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채록자가 그 지역에서 채록한 것인지 살펴볼 차례다.

1.1. 지형 형성 (각편 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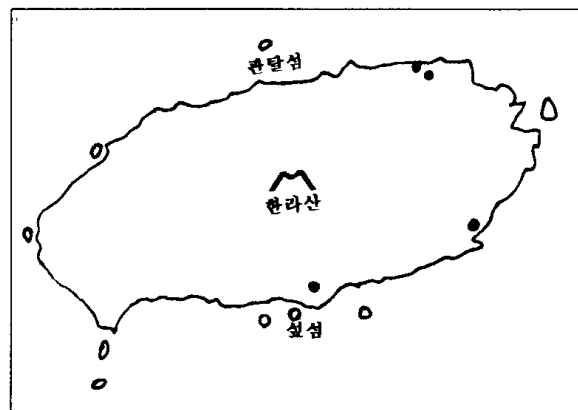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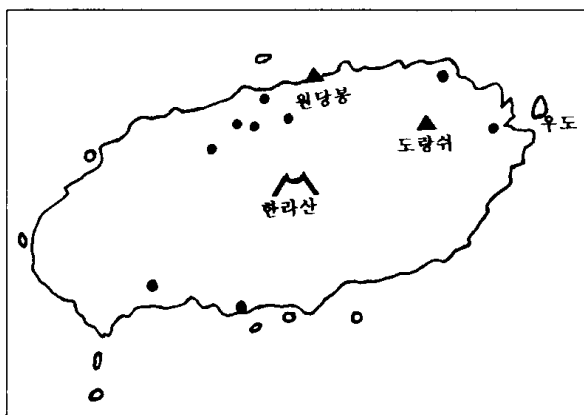
성산면 고성리, 제주시 노형동
제주시 오라동, 제주시 회천동
제주시 이도동, 구좌읍 한동리
애월읍 고성리, 안덕면 상창리
중문면 강정리

1.2. 발뻘고 잠자기 (각편 4개)

김녕리 용두동, 구좌읍 김녕리
표선면 표선리, 서귀포

[그림2] 지형 형성 각편 분포

[그림3] 발뻘고 잠자기 각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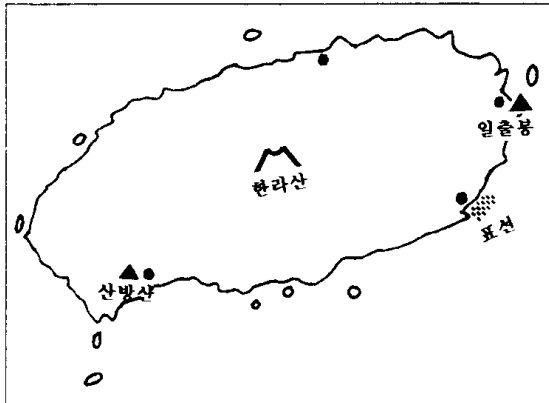
1.3. 한 걸음에 섬 가로지르기

(각편 4개)

표선면 표선리, 안덕면 상창리,
성산면 고성리, 조천면 조천리

[그림4] 한 걸음에 섬 가로지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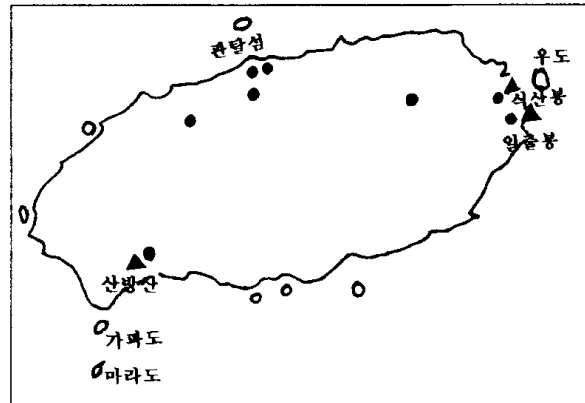
각편 분포



1.4. 빨래하기 (각편 8개)

성산면 시흥리, 성산면 고성리
애월읍 고성리, 안덕면 상창리
구좌읍 송당리, 제주시 노형동
제주시 이도동, 제주시

[그림5] 빨래하기 각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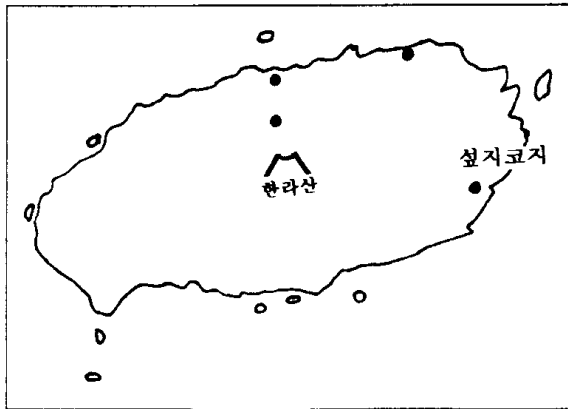
1.5. 사냥·고기 잡기(각편 4개)

김녕리 용두동, 성산면 신평리
제주시 오라동, 제주시 이도동

1.6. 連陸橋놓기 (각편 14개)

성산면 신평리, 성산면 고성리
구좌읍 하도리, 김녕리 용두동
제주시 오라동, 제주시 노형동
조천면 조천리, 애월읍 고성리
한림읍, 표선면 표선리 3편, 중문
중문

[그림6] 사냥·고기 잡기 각편 분포 [그림7] 連陸橋농기 각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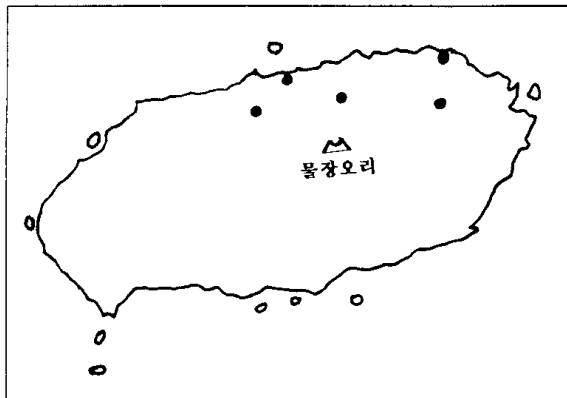
1.7. 키자랑·죽음(각편 5개)

제주시 노형동, 제주시 회천동
제주시 이도동, 구좌읍 송당리
김녕읍 용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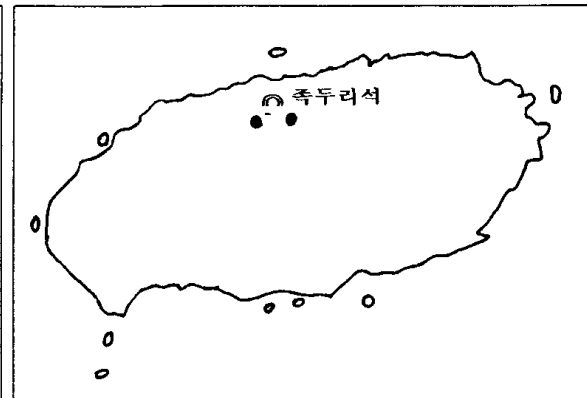
2.1. 족두리석 (각편 2개)

제주시 오라동, 제주시 노형동

[그림8] 키자랑·죽음 각편 분포



[그림9] 족두리석 각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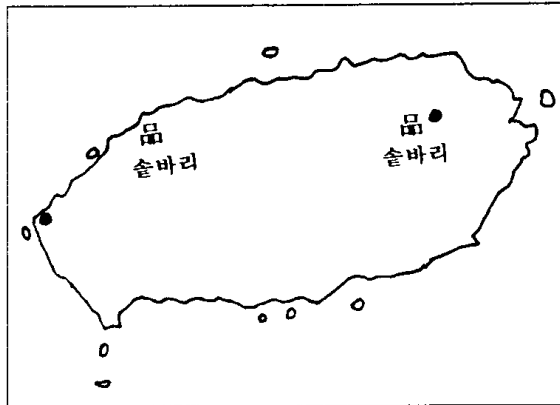
2.2. 솔바리(각편 2개)

한경면 고산리,
성산면 수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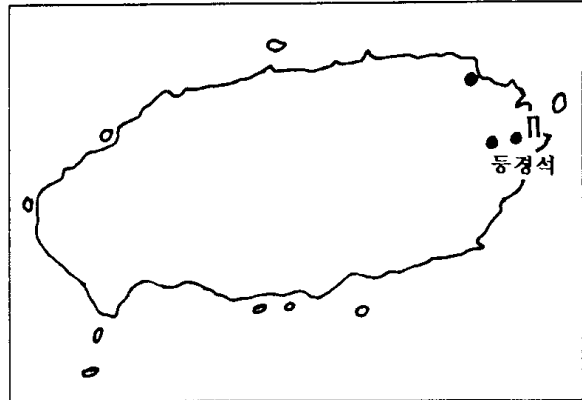
2.3. 등경석(각편 3개)

구좌읍 송당리, 성산면 고성리,
구좌읍 한동리

[그림10] 솔바리 각편 분포



[그림11] 등경석 각편 분포



지역별 분포를 보면 連陸橋농기, 조형 형성, 빨래하기³⁶⁾는 전도에서 채집되고 있어 광범위한 전승력을 지닌 행위담인데 비해 죽음부터 모자, 솔바리까지는 특정지역 위주의 편중된 전승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설화 유형 중에는 광범위하게 전승되는 것도 있지만, 특정지역에서만 부분적으로 채집되는 것도 있다는 전승 실태를 알려주며, 설문대할망 설화의 연구방법으로 특정 설화 유형담과 지역의 연관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설문대할망 설화는 이렇듯 제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지 않고 단지 거녀담으로 처리되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10가지 유형담을 중심으로 제주민과 어떤 관계 속에서 설화가 생성되었는지 지역과 그곳의 역사, 그리고 지역민과의 관계 속에서 설화의 의미를 추구하고자 한다.

36) 유형담 별로 채록 수는 다음과 같다.

連陸橋농기(14) > 조형 형성(9) > 빨래하기(8) > 키자랑 · 죽음(5) > 발뺀고 잡자기, 한 걸음에 섬 가로지르기, 사냥, 고기잡이(4) > 등경석(3) > 족두리석(2), 솔바리(2). 이 중 '連陸橋농기'는 채록 빈도수가 가장 높아 설문대할망 설화의 대표적 유형담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유형의 형태와 의미

1. 행위담

1.1. 조형 형성

한라산은 巨神 설문대할망이 치맛자락으로 흙을 몇 번 날라다 붓자 남한 최고봉이 되었다. 이밖에도 한라산 주변 수많은 오름, 섬 등 제주 지형을 만든 설문대할망 설화는 일찍이 천지창조신화로 분류되었다.

천지창조신화란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내력을 밝혀주는 신화로써 거인에 의한 창조 행위는 전세계적인 경향이다.

거인의 몸이 해, 달, 산, 강, 풀, 나무 등으로 변했다는 중국의 반고설화, 고대 인도의 푸르샤, 게르만의 이밀, 이란의 가요마르트 등은 거인의 死體에서 세계가 생겨났다.³⁷⁾ 한국에도 앞의 거인신화와 차별성이 있기는 하나 거인의 창조신화가 전한다. 육지의 ‘마고할미’와 제주 ‘설문대할망’은 한 순간에 성을 쌓거나 산을 만들곤 했다. 흙을 한 순간에 자유자재로 이동시킬 수 있는 시간, 공간 이동력과 힘은 거녀에게 외경과 신성을 부여했고 신화시대 믿음의 대상으로 존재케 한다. 그리고 거인의 천지창조신화는 건국신화나 시조신화보다 더 앞선 신화시대의 산물로서 지형 창조 유래담을 담고 있으므로 당대 선인들의 세계와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설문대할망 설화 역시 화산섬인 제주 지형 형성을 제주 선주민이 어떻게 사고하여 왔는지 유래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할망의 지형 형성담을 다시

37) 大林太良(권태효 역), 『신화학입문』, 새문사, 1996, 98쪽.

하위 유형담으로 나누고 간단한 문장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흙을 옮겨 산을 만들었다.

둘째. 우연히 치맛자락에서 떨어진 흙이 오름이 되었다.

셋째. 오름을 샀더니 흙이 패여 섬이 되었다.

첫째는 설문대활망의 의도적 창조행위이며, 둘째, 셋째는 거인의 신체적 특징 때문에 우연히 생긴 부가물이다. 특히, 셋째는 거인의 배설물이 창조에 관여하여 흥미 위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둘째와 별도로 다루고자 하였다.

[표3] 지형 형성 각편 분포

| 책이름 | 구연자 | 구연지 | 행동 | 만든 대상 | 사용한 도구 |
|--------|------------|------------|---------------------------------------|-------|--------|
| 제주도전설 | 김석보 한공익 | 성산면 고성리 | 흙을 쌓아 오름을 만들 | 다랑쉬오름 | |
| 대계9-2 | 송기조 | 제주시 오라동 | 흙을 날라 오름을 만들 | 한라산 | 치맛자락 |
| 한국의 신화 | 이씨 | 안덕면 상창리 | 흙을 날라 오름을 만들 | 한라산 | 치맛자락 |
| | 고삼립 | 구좌읍 송당리 | 흙 쌓아 만들 | 한라산 | 삽 |
| 제주도전설 | 현용준 | 제주시 | 흙을 나르다 떨어 져서 됨 | 오름 | 치맛자락 |
| 대계9-2 | 송기조 | 제주시 오라동 | 흙을 나르다 흘려 내림 | 오름 | 치맛자락 |
| 제주설화집성 | 김병수 | 애월읍 고성리 | 산에 앉아 빨래하 다 산꼭대기를 던짐 | 산방산 | . |
| 백록어문10 | 고신봉 | 제주시 회천동 | 누웠다가 일어나자 치마에 묻은 흙이 떨어짐 | 원당봉오름 | 치맛자락 |
| | | | 한라산에 배개 만 들러 가다 치마 자 락에서 흙이 떨어짐 | 오름 | 치맛자락 |

| | | | | | |
|--------|-----|------------|-----------------------------|-------|------|
| 백록어문11 | 김차옥 | 구좌읍 한동리 | 한라산에서 내려오 던 중 흙이 떨어짐 | 오름 | 치맛자락 |
| 한국의 신화 | 이씨 | 안덕면 상창리 | 치마에 흙 나름 | 오름 | 치맛자락 |
| | 고삼립 | 구좌읍 송당리 | 삼으로 흙 나름 | 오름 | 삼 |
| 한국구전설화 | 고홍규 | 제주시 이도동 | 오름에 발 디디고 바다 향해 오줌을 쌈 | 우도 | . |
| 한국의 신화 | 이갑순 | 중문면 강정리 | 수수범벅을 먹고 똥을 쌈 | 굿상망오름 | . |

첫째, 설문대할망의 지형 창조물은 한라산과 오름이 대표적이다.

한라산은 주변의 기생화산인 오름群과 생성 시기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라산이 먼저 솟아났고 그 후 오랜 시간에 걸쳐 간헐적인 폭발로 오름들이 360여 개 가량 생겨났다. 형성 시기만이 아니라 제주의 정 가운데 위치한 한라산은 크기 면에서도 제주 어디서든 볼 수 있기에 제주 대표적 산이며 남한 최고봉이다.

오름들은 한라산 자락과 허리에 둘러 있어 제주에서 오름을 오르는 길들은 결국 한라산에 닿게 된다. 즉 오름들은 한라산으로 오르는 길목길목 작은 산이다.

창조물인 오름의 예로 다랑쉬오름³⁸⁾이 있다. 제주 북동편 오름群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경관을 갖고 있어 대표적 오름에 속한다. 산정에는 설문대가 치마로 흙을 나르다 너무 도드라져 보이자 주먹으로 쳐 패인 분화구가 있

38) 표고 382.4 오름인 다랑쉬의 옛 한자어는 大郎秀岳, 月郎水山이다. 즉, 이곳에서 바라보는 달맞이의 장관을 보여주는 이름이며 또한 높은 봉우리란 뜻을 갖고 있는 고구려어의 흔적이라고도 한다. 어쨌든 다랑쉬오름은 예로부터 아름다운 경관으로 알려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종철, 『오름나그네』, 높은 오름, 1995, 34~38

다. 다랑쉬는 분화구의 모양 자체가 특이하고 이곳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낙월은 지척 성산 일출봉의 일출과 더불어 근래에 관광 명소로 각광 받고 있다.

흙을 나른 방법 대부분은 치맛자락이지만 삽도 있다. 치맛자락은 여인들의 오랜 들것으로 이용되었으며 삽은 농경사회로 발달하면서 보다 쉽게 흙 더미를 파서 나르던 것으로 남성용 도구이다. 이것은 구연자가 남성이기에 일어난 변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우연히 생긴 것으로 제주 수많은 오름群에 해당한다. 첫째, 한라산을 만들다가 치맛자락에서 흘러내린 흙들이 우연히 오름이 되었다는 설화는 한라산을 향해 점점이 모여든 오름들의 형상을 보여준다. 치맛자락이 주 사용 도구지만 삽 또는 나막신이 매개체로 사용되기도 한다. 치맛자락이나 삽은 할망이 흙을 나르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반면 나막신인 경우, 우연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나막신이란 비올 때 신던 신발로 우중 통행에 적합토록 신바닥에는 적절한 나무 홈이 여러 개 있게 마련이다. 나막신에서 떨어진 흙덩이들이 되었다는 오름은 점점이 떨어져 있는 오름군의 형상과 할망이 거대한 체구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제주 오름들은 화산섬인 제주 특유 지형이다. 오름의 형성은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되었다. 지각의 변동은 거인과 행동과 연관지을 수 있다. 화산활동의 징후를 옛사람들은 거인의 발자국 소리나 거인이 무엇인가를 떨어뜨리는 소리로 인식했을 지 모를 일이다. 이런 사고는 나막신, 치마에서 떨어져 생긴 흙, 치맛자락에 묻어 있던 흙이 운행도중 떨어져 오름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갑자기 흔들리는 땅, 떨어져 내리는 돌들, 그리고 갑작스레 솟아난 오름은 하루아침에 생소한 산³⁹⁾을 마주하게 된 체험을 갖고 있는 이들에겐 누

군가가 떨어뜨린 것이라고 여기게 될 법하다.

셋째, 신의 영역이었던 지형 형성은 거인의 배설로 이야기되기도 한다. 설 문대할망의 위대한 지형 창조담이 어느새 흥미 본위의 민담으로 전하고 있다. 이들 비속화된 민담중 대표적인 것은 우도 유래담이다.

원래 섬이 아니었던 우도가 바다 중에 생겨나게 된 근본 원인은⁴⁰⁾ 거인이 썩은 오줌 때문이다. 오줌은 강을 이뤘고 육지 조각이 성산에서 떨어져 나가 섬을 만들었다. 성산 앞 바다에 있는 오름 식산봉과 일출봉에 발을 딛고 오줌을 누자 깊이 골이 패었다. 그 골에는 지금도 고래, 물개 등이 살만큼 깊고 물살도 세서 자주 배들이 멀리 대마도까지 난파되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산에서 떨어져 나가 만들어졌다는 우도 유래담은 정작 우도에서는 채록되고 있지 않다. 그다지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지 채록 유래담은 19세기초 제주인의 우도 이주담을 들려 줄 뿐이었다. 우도는 원래 국유 목마장이었고 무인도인 우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구좌와 제주시 동편 주민들의 이주로 이뤄졌다⁴¹⁾. 당시 조선의 행정구역은 대정현, 정의현, 제주목의 三分 체제로써 우도의 취락 이주는 정의현보다 제주목민 위주로 이뤄졌다. 이주는 경제적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렇게 이주된 이들이 지역 유래담을 전하지 않을 리 없다. 바다와 섬이란 숙명으로 겪는 우도 지역

39) 화산 및 지진은 일제시대까지 계속되었다. 제주도의 지진기록은 조선 1455년, 1670년 그리고 일제시대 5회 있었다고 동국여지승람, 탐라지, 동국통감, 남산보국 등에 지진이라고 명시한 것은 아니나 기록으로 남아 있다.

강승삼, 「제주도 지형·지질 연구의 과거·현재와 전망」 『제주도연구』 4집, 제주도연구회, 1987. 167쪽.

40) 우도 유래는 현용준의 제주도 전설에 채록된 이유 그 문장을 그대로 다른 여러 책자에서 자주 재 수록하여 인용되어 왔다.

41) 우도는 오랜 세월 무인도였다. 마소가 처음으로 방목된 것은 17세기말로 보이며 그 후 백여 년이 지난 19세기초에 사람들이 이주했다고 耽羅紀年에 전한다. 일설에는 섬에 가난한 사람들을 이주시키려는 시도로 1841년(憲宗 7년) 우도에 방목중인 牛馬를 실어내면서 이주하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급작스럽게 마을이 형성되었다 한다. 『국문학보』 5집, 제주대학 국어국문학회, 1973. 58~59쪽.

민들의 불편은 지금도 극복 대상이기 때문이다.

굿상망 오름 역시 거인의 배설로 생긴 오름이다. 즉, 성산의 우도와 중문의 굿상망 오름 유래담은 조선후기에 이미 희화되었고 민담화 현상을 보인다.⁴²⁾

이 설화는 오줌의 세기와 거대한 양을 강조하여 설문대할망의 섭지코지 이야기⁴³⁾와 더불어 신화였던 창조담이 희화된 민담으로 변이된 예에 해당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설문대할망의 창조적 행위는 시간이 흐르자 점차 희화되어 전하고 있다. 이처럼 지형 형성 유형담은 희화된 민담으로 변이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예 지형 형성담에서 설문대할망의 창조성이 제외된 ‘섬이동 설화⁴⁴⁾’로 발전하기도 한다. 제주의 섬 이동 설화에는 비양도와 군산 생성담이 있다.

화산활동은 한라산이 생긴 이래 잦은 여진으로 계속되었고 고려시대 문헌에 2차례의 폭발이 기록화 되어 남아 있다. 당시 수중폭발로 생긴 섬으로는 1002년 북제주군의 ‘비양도’와 1007년에는 남제주군의 ‘군산’이 생겨난 것으로 추정된다⁴⁵⁾.

42) 장주근은 문헌조사를 통해 살핀 바, 신화의 산출심리는 고려시대에 이미 사라졌다고 보았으며 理智의 발달은 신화의 민간구전도 어렵게 하여 결국 전설, 반 민담화되었다고 하였다. 장주근, 『한국문화사대계』 V, 앞의 책, 657쪽.

43) 섭지코지는 우도 남쪽, 성산 일출봉 아래에 위치한 돌출 반도이며 설문대할망 유형담 중 ‘사냥·고기 잡기’에서 논의될 것이다.

44) 산이 움직이다 멈추는 설화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중 거제도와 제주에서는 섬이 이동하다 멈춘 설화가 채록되고 있다. 결국, 전국적으로 채록된 地體移動說話는 크게 산 이동 설화와 섬 이동 설화로 나눌 수 있다.

현승환, 「섬이동 설화고」, 『제주도연구』 7집, 1990, 318~322쪽.

45) 역사적 화산 활동의 기록은 탐라사실신증기록에 1002년 분출 기록이 있어 비양도 융기는 비교적 확실한 것으로 단정되며, 동국여지승람에 1007년 분출 기록된 산은 대정현 서산이다. 그러나 서산이란 지명은 대정에 없고 서산이 군산일 것으로 일반적으로 유추되고 있다. 강승삼, 앞의 책, 167쪽.

그런데 이 두 섬은 유래담이 다른 섬이나 오름과는 다르다. 중국에서 떠 내려 왔다는 것과 마을에 일어난 해일과 여진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 다른 오름이나 섬 형성담에 비해 사실적 묘사와 인식이 돋보인다.

비양도는 고려시대 중국에서 날아오다 잘못 왔다 싶자 획 돌아앉은 것이 마을에 해일을 일으켰고 그 자리에 멈췄다고 한림에서 전하는 반면, 좀 더 동쪽에 위치한 괘지에서는 어떤 아기 뱀 부인이 아침에 물을 길러 바닷가에 갔다가 괘지 쪽으로 떠오르는 섬을 보고 섬이 떠온다 소리치자 한림 앞 바다에 멈춰버렸다 한다.⁴⁶⁾

군산은 중국 崑崙山에서 회오리바람에 싸여 날아와 창천 마을 앞에 앉았는데 당시 산이 솟을 때 雲霧가 자욱하고 地動이 7일 밤낮으로 계속 되었다 전한다⁴⁷⁾ 고려시대의 제주인은 갑자기 솟은 산이나 섬을 더 이상 설문대의 창조행위와 연관시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섬 이동 설화는 원래 거인설화의 한 형태였으나 거인의 존재는 사라지고 스스로 이동하는 것으로 변모되었고 산이나 섬을 멈추게 하는 여인은 여성 거인의 변모된 모습이라 보기도 한다.⁴⁸⁾ 따라서 ‘섬이동 설화’에서는 갑자기 솟은 섬을 거인의 奇人적 힘으로 설명하는 대신 인간 중심의 사고로써 섬이 혼자 떠내려 온 것으로 여기고 있다.

앞에 서술한 설문대할망의 지형 형성 유형담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 지형 형성은 첫째, 설문대할망의 절대적 창조물이며 둘째, 신성성의 소멸로 창조성이 민담으로 회화되었고, 셋째, 점차 현실적 사고로 섬이 떠 온 것으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

46) 오성찬, 『제주의 마을 시리즈: 한림리』, 반석출판사, 1987. 111쪽.

구연자는 한림읍 월림리 홍태효(남, 83)와 애월읍 금성리 좌수선(남, 89)이다.

47) 임석재, 앞의 책, 201쪽.

48) 권태효, 「거인설화의 관점에서 본 산이동 설화의 성격과 변이」, 『구비문학연구』 4집, 1979, 243~244쪽.

또한 한라산과 오름군의 형성시기와 위치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한라산을 기준으로 할망이 움직이고 있어 한라산에 의지하여 사는 제주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고려 이전에 거인의 신화성이 이미 소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 발뼀고 잠자기

설문대할망은 한라산을 베개삼아 누우면 다리는 섬에 닿았다.

[표4] 발뼀고 잠자기 각편 분류

| 책이름 | 구연자 | 구연지 | 다리가 닿은 곳 | 위치 | 방향 |
|--------|-----|------------|--------------------|---------------------|----|
| 제주도전설 | 안용인 | 구좌읍 김녕리 | 관탈섬 | 제주시 앞 바다 | 북 |
| 대계9-1 | 안용인 | 김녕 | 추자, 사수 | 전라도와 제주 중간 바다 | 북 |
| 한국구전설화 | 오윤범 | 표선면 표선리 | 바다 | . | 북 |
| 한국의 신화 | 김씨 | 서귀포 | 구멍이 2개 뚫려 있는 쇄섬 | 서귀포시 앞 바다 | 남 |

설문대의 키가 얼마나 컸던가를 말해주는 이야기이다. 한라산을 베개 삼아 누우면 다리는 바다까지 닿아서 바닷물에 물장난했다. 잘 때는 바닷물에 발이 젖지 않게 두 다리를 섬 위에 올려놓았다.

그 위치는 제주 앞 바다⁴⁹⁾ 그리고 서귀포시 앞 바다에 있는 섬들에 해당한다. 특히 서귀포시 앞 바다에 있는 무인도 쇄섬⁵⁰⁾은 할망이 기지개를 켜

49) 좀 더 멀리 본다면 추자도까지 다리를 얹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대계』 9-1에서 다리를 얹은 섬은 추자도, 泗水島다. 그중 泗水는 추자면 예초리에 속한 무인도이므로 추자도라고 할 수 있다.

다 발을 잘못 뺀어 생긴 듯 구멍이 나란히 두 개나 뚫여 있다.

그런데 할망이 발을 뺀 섬의 방향이 정남, 정북으로만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는 사면에 섬이 딸려 있다. 북쪽의 관탈섬, 남쪽의 섶섬뿐만 아니라 서쪽은 차귀도, 비양도, 마라도, 가파도 동쪽은 우도 등 설문대할망 설화에서 증거담으로 자주 이용된 섬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서쪽인 안덕에서 채록된 『제주도전설』은 가까운 가파도, 마라도를 두고 굳이 서귀포 앞 바다의 섶섬을 증거로 들고 있으며 표선에서 채록된 『한국의 신화』는 지척의 우도를 두고서 먼 거리의 북, 남쪽 섬을 증거물로 삼고 있다. 이처럼 구연지와 상관없이 남, 북 위치의 섬들을 잡는 이유는 오름群 지형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섬의 생김새가 동서로 길게 오름군이 형성되어 있어 한 눈에 보기에 할망이 동서로 등을 대고 잠을 잔다는 것은 허리가 아파 상상도 못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설화의 현실감은 고근산에서도 전한다. 설문대할망은 한라산에 베개 베고 고근산 굽부리에 엉덩이를 얹어 앞 바다 섶섬에서 물장난했다는 데 실제로 섶섬에서 한라산 정상까지는 10km, 다리를 걸쳤던 섶섬까지는 다시 5km로 고근산을 중간에 두고 일직선으로 늘어 서 있다⁵¹⁾

따라서 거너 설문대할망이 한라산을 베개로 베고 편히 쉴 장소는 북쪽인 제주시와 남쪽인 서귀포시가 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주의 중심지로 이미 오래 전부터 취락이 형성되었는데⁵²⁾ 물이 귀한 제주다 보니 한라산에

50) 섶섬은 범섬과 같은 이름으로 지도에는 범섬으로 표시되어 있다.

51) 김종철, 앞의 책, 231~236쪽.

52) 제주시 취락 형성은 제주 삼성신화에 나타나 있다. 三神人이 활을 쏘아 거주지를 정하였는데 활로 정한 지역은 현 제주시 1도, 2도, 3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주시는 일찍이 취락 조건을 갖고 있었다.

현용준, 「삼성신화연구」, 『탐라문화』 2, 1983, 24쪽.

서 내려오는 하천의 80%가 북, 남으로 흘러⁵³⁾ 다른 지역에 비해 풍부한 수량을 갖춰 사람살기에 적합한 곳이다. 이 곳은 설문대할망 뿐만 아니라 제주인의 주거지로도 합당한 곳으로 제주도의 두 시로 발달하였다.

따라서 ‘발뻘고 잠자기’에선 오름群의 위치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차별성 그리고 시로 발전한 제주인의 주거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한라산에 머리를 두고자 하는 설문대할망과 마찬가지로 죽어서도 오름에 묻히곤 하는 제주인의 죽음의 안식처와도 상관이 있다.

1.3. 한 걸음에 섬 가로지르기

설문대할망은 한라산과 이동하고자 하는 곳의 거리가 한 발자국 정도밖에 안 되는 큰 키를 갖고 있다.

[표5] 한 걸음에 섬 가로지르기 각편 분류

| 책이름 | 구연자 | 구연지 | 기준점 | 닿은 곳 | 거리 | 이동 거리 |
|-------|------------|-----|-----|--------|-------|----------------------|
| 제주도전설 | 김석보 한공익 | 성산 | 한라산 | 일출봉 | 한 발자국 | 제주 반을 가로지름 |
| 제주도전설 | 홍성흡 | 표선 | 한라산 | 표선리 해변 | 딛고 섬 | 제주 반을 가로지름 |
| 제주도전설 | 양성필 | 화순 | 한라산 | 산방산 | 딛고 앓음 | 제주 반을 딛고 앓음 |
| 국문학보 | 김수동 | 조천 | 조천 | 추자도 | 한 발자국 | 추자까지 한 발자국의 거리 |

53) 제주 동서 방향은 남북보다 경사가 완만하여 수계 발달이 빈약하다. 따라서 많은 하천들이 남류 하거나 북류 하는 것이 보통이다.

김지수, 「제주도의 하천 특성」, 『탐라지리교육연구』, 탐라지리교육연구회, 1998, 42쪽.

설문대할망 걸음 보폭의 기준점은 한라산이며 닿고자 하는 종착지는 김석보, 한공익은 ‘성산 일출봉’, 홍성흡은 ‘표선 백사장’, 양성필은 ‘산방산’이며 김수동은 추자도⁵⁴⁾이다.

성산 일출봉, 백사장, 산방산은 각각 설화 전승지인 성산, 표선, 화순의 상징적 지형물로써 결국 자기 고장에서 가장 멀리 보이는 한라산까지 거리가 할망의 한 발자국이면 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이 유형담은 설문대할망이 아무리 먼 곳이라 해도 시, 공간을 구애받지 않고 넘나들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위 얘기를 종합해보면 설문대할망은 한라산보다도 더 큰 키를 갖고 있어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발을 들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설 수 있는 신적 존재다. 따라서 지리적 한계성을 극복한 초인적 능력은 종교적 외경심이 되어 설문대할망이 신앙적 믿음이었을 가능성을 ‘한 걸음에 섬 가로지르기’에서 살펴볼 수 있다.

1.4. 빨래하기

설문대할망은 한라산과 섬에 발을 딛고 넓은 바다에서 빨래했다.

[표6] 빨래하기 각편 분류

| 책이름 | 구연자 | 구연지 | 발 디딘 곳 | 빨래한 곳 | 빨래 방법 |
|-------|-----|-----|--------|-------|-------------------|
| 제주도전설 | 현용준 | 노형 | 관탈섬 | 제주앞바다 | 섬에 빨랫감을 두고 발로 문지름 |

54) 설문대의 키를 가장 크게 보는 이는 조천 김수동이다. 김수동은 설문대할망이 추자도까지 한 걸음에 육지와 제주를 왕래할 수 있다고 하여 다른 구연자들보다 더 큰 공간 이동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변이는 김수동이 할망을 신화적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상관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1.6. ‘連陸橋놓기’에서 제시될 것이다.

| | | | | | |
|--------|------------|------------|---------------|----------|--|
| 한국의 신화 | 고씨 | 제주시 | 한라산, 관탈섬 | 제주앞바다 | 한라산, 섬에 발을 던고 바닷물에 빨래 함 |
| 한국구전설화 | 김여사 | 안덕면 창천리 | . | . | . |
| 한국의 신화 | 고삼립 | 구좌읍 송당리 | 가파도, 마라도 | . | 섬에 발 던고 바닷 물에 빨래 |
| 한국구전설화 | 고홍규 | 제주시 이도동 | 소섬, 범섬 | 성산 앞바다 | 한라산에 앉아 섬 에 발을 던고, 일출 봉을 빨랫돌 삼음 |
| 제주도전설 | 양기빈 | 성산 | 지귀도 또는 마라도 | 성산앞바다 | 섬에 발던고 성산 일출봉을 빨래바구 니로, 우도를 빨랫 돌로 사용함 |
| 제주도전설 | 김석보 한공익 | 성산읍 고성리 | 한라산, 우도 | 동 또는 북,남 | 발 던고 서서 바닷 물에 빨래함 |
| 제주설화집성 | 김병수 | 애월 | . | 태평양 | 한라산에 앉아 빨 래를 하다 엉덩이가 아프자 산봉우리를 뿔아 던짐 |

제주는 화산섬이라는 지형적 특성상 물이 귀하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방사선으로 골짜기가 발달했으나 대부분 건천이며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하천으로 발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물을 얻는 방법은 빗물을 받아 걸러 사용하거나 지하로 숨었다 다시 낮은 지역에서 솟는 용천수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하로 숨어든 물은 해안 가에서만 솟기 때문에 대부분의 빨래터 역시 바닷가였다. 바닷가에서 솟는 물은 지하에 있던 물이라 몹시 차갑기에 빨래를 하려면 발이 시리게 마련이다. 그래서 지금도 해안마을에는 몸을 씻거나 빨래 등 생활용수를 이용하던 공동 이용 터가 돌담으로 둘러 있다.

설문대할망이 빨래할 때 발을 디딘 곳은 섬들이다. 바다에서 빨랫감을 들고 빨래 방망이를 내두르는 일은 제주 여인들의 일상적 삶이었기 때문인지⁵⁵⁾ ‘빨래하기’ 유형담은 설화에서 자주 등장한다. 설문대할망은 빨래할 때면 주로 주변 섬에 발을 디디고 했다. 한라산과 제주시 앞 바다, 제주 북동쪽 일본과 제주 사이 그리고 제주 남쪽 태평양에 해당하는 섬인 관탈섬, 지귀도, 마라도, 추자도, 완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섬들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야 섬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고 하니 설문대할망이 섬을 밟고 빨래를 했다해도 무리가 없다. 이 부분 역시 설화의 현실감이 돋보인다.

빨래하는 모습에서 추측할 수 있는 빨래하던 방향도 주의할만하다. 제주시를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제주 앞 바다, 일본 쪽, 태평양 쪽에서 빨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면이 바다인 제주에서 유독 중국 쪽인 서쪽, 서북쪽에서 빨래를 했다는 각편은 채록되지 않았다.

그런데 빨래 방향은 제주의 기후와도 일치하는 면이 있어 주목된다. 제주 는 예로부터 비가 많이 오는 多雨 지역이다.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은 한라산 이고 지역 순으로는 산남, 산북, 산동 산서로 강수량 차가 500mm나 된다.⁵⁶⁾ 이처럼 서쪽은 비가 적게 오는 지역으로 유명하다⁵⁷⁾.

그렇다면 서쪽이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이라는 것과 설문대할망이 서쪽에

55) 전체적인 지역 분포와 채록 수가 많은 편이다. 각주 36) 참조.

56) 제주도의 기후는 대체로 수직적으로는 해안, 중산간, 산악으로 구분되며, 평면적으로는 한라산을 기준 삼아 산북(제주), 산남(서귀포), 산동(성산포), 산서(대정)으로 구분 짓는다. 기후 요소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강수량이다. 온대성 저기압, 장마전선, 태풍, 그리고 한라산의 지형적 영향으로 강수 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산악(2765) > 중산간(1779) > 해안 (1520)

서귀포(1718mm) > 제주(1440mm) > 성산포(1694mm) > 대정(1239mm)

강만익, 「제주도의 기후성격」, 『탐라지리교육연구』, 앞의 책, 61쪽.

57) 서쪽에서는 현재 선인장등 비가 적게 오는 곳에서 잘 자라는 대용작물을 심어 소득을 얻고 있다.

서 빨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현길언은 설문대할망이 빨래를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는 나름의 상상력으로 빨래와 비를 동일시하였다.⁵⁸⁾뿐만 아니라 비와 빨래를 연관지을 수 있는 이유는 다음의 빨래하는 방법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설문대할망은 빨래할 때면 그냥 물에 행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빨랫감을 섬에 대고 발로 문지르고 밟고 방망이로 두드리면서 한다. 바다 멀리에서 들리는 천둥소리와 바다의 움직임 그리고 하늘의 변화는 비를 동반한다. 섬 날씨는 기후변동이 잦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두고 하늘의 기상을 좌우하는 신을 옛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올림푸스에 신들이 거하기 전 巨神族이 살았다는 얘기와 巨神族인 바람, 바다, 기후를 주관하는 신들이 있듯이 말이다.

여기서 더 생각해 볼 문제는 기상 변화와 빨래하는 여신의 연관성이다. 제주 孤島라는 지형적 특성상 드넓은 바다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다. 바다에서 빨래하는 모습이 일상적 삶이었던 제주 여인은 빨래를 해도 넓은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여신에게 바다 넘어 섬의 한계성을 극복, 진출의 욕망을 투영했을 것이다. 따라서 빨래하기 유형담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제주인에게 불편하기만 하던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바다 멀리에서 빨래를 할 수 있는 설문대할망이라면 물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다.

둘째, 강수량은 설문대할망의 빨래담과 연관이 있다. 제주 사면 중에서도 유독 비구름이 피해 가는 서쪽, 북서쪽의 사정을 보여준다.

58) 할머니가 입던 옷을 큰 강물이 없어 바닷물에 빨아 두 손으로 쥐어짜면, 그 물방울들이 온 섬에 비오듯 떨어져 사람들은 또 홍수가 난다고 야단이었다.

현길언, 앞의 책, 28쪽.

1.5. 사냥 · 고기 잡기

배가 고플 설문대할망은 설문대하루방과 함께 하문을 이용한 사냥, 고기잡이를 했다.

[표7] 사냥 · 고기 잡기 각편 분류

| 책이름 | 구연자 | 구연지 | 조력자 | 도구 | 이유 | 잡은 것 |
|--------|-----|------------|-----|--------------|---------------------------|------|
| 대계9-1 | 안용인 | 김녕리 용두동 | 없음 | 할망의 하문 | 한라산에서 오줌 눅 | 사슴 |
| 대계9-2 | 송기조 | 제주시 오라동 | 있음 | . | 하루방이 고 기가 먹고싶 다 제안함 | . |
| 제주설화집성 | 오문복 | 성산읍 신평리 | 있음 | 부부의 성기 이용 | 배가 고파서 | 물고기 |
| 한국구전설화 | 고홍규 | 제주시 이도동 | 없음 | 할망의 하문 | 배가 고파서 | 물고기 |

‘사냥 · 고기 잡기’는 흥미 위주로 민담화한 가장 대표적인 행위담이다. 성기를 이용하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다는 얘기인데 특이한 것은 설문대의 남편인 설문대하루방이 등장하는 유일한 행위담이며 사냥, 고기잡이 행위의 주도적 인물이 설문대하루방이라는 사실이다.

큰 키에 걸맞는 짝을 구하지 못하던 설문대하루방은 어느 날 드디어 설문대할망을 만났다. 결혼을 하면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라며 청혼하여 둘은 부부가 되었고 고기잡이를 나갔다. 바다에 그물을 치듯이 설문대할망이 물살이 센 섬지코지 물목에 앉았다. 하루방은 자신의 성기로 고기를 섬지코지로 몰아갔다. 고기가 물려와 할망의 하문으로 들어가자 하루방은 하문을 잠그고 고기를 낚아 올려 육지에 퍼 놓으라고 했고 그 둘은 많은 고기를 잡아 먹었다. 그래서 일명 ‘설문대코지’라고 한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전적으로 하루방의 지시로 이루어진 고기잡이다. 한라산을 만들고 육지까지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위력을 보여주던 설문대할망으로서는 의아스러운 행동이며 거인의 큰 성기를 강조하고자 만들어진 행위담으로 보인다. 이 같이 큰 성기를 강조하는 모티프⁵⁹⁾는 한라산에서 할망이 오줌누다 사슴을 잡았다는 이야기로도 전하고 있다.

흥미 본위 민담으로 전하는 유형담으로는 ‘지형 형성’ 유형담중 ‘우도 유래담’에서도 이미 검토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두 유형담은 전승지가 둘 다 성산이란 특이성이 있다. 따라서 전승 요인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산은 비교적 늦은 시기에 생활민이 정착하였다. 제주의 다른 북쪽 취락에 비해 오랫동안 왜구의 침입으로 마을을 이룰 새가 없었던 것이다. 성산이 취락 지구로 정착한 것은 고려 이후가 된다⁶⁰⁾. 고려는 이미 신화시대가 아니었고 불교의 정착과 더불어 유교의 영향하에 있었다. 성산은 등경석과 우도의 생성 등 설문대할망 신화를 다시 민담화할 수 있는 시대적,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냥·고기 잡기’ 유형담의 민담화 현상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산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생성된 것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유형담과 달리 설문대하루방이 나오는 유일한 유형담으로 설문대하루방이란 이름으로 미루어 보건대 ‘설문대’는 실제 이름이라기 보다는 관련 사건명, 지역명, 관직명, 또는 신체적 특징의 성명화 가능성을 추측해본다.⁶¹⁾

59) 큰 성기를 강조하는 모티프는 그밖에도 巨根으로 다리를 놓았다는 김수로왕이 있다.

60) 1818년 고씨 夫子가 구좌읍 김녕에서 성산으로 이주해 왔다고 향토에서 전한다. 이밖에도 선조 34년에 지은 김상헌의 『남사록』에 의하면 400여 년 전부터 취락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6. 連陸橋놓기

“ 춤 설문대 할망이 원 어떤 서늑새가 웨여난딘 모르주만 제주도에서 말홀
것 ㄴ트민 당신이 속옷 하나 해줄 것 ㄴ트면 내가 여기서 진드ㄲ진가 드릴
놔주겠다고 했어. 멩주 선통을 들고고도 속옷 하나를 못해놓기로 춤 그 드릴
춤 못놔다고 하여.⁶²⁾”

다리를 놓다가 중단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과 설문대의 다리놓기 능력 자체를 반신반의하는 구연자의 어감에서 알 수 있듯이 설문대할망과 제주민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각편에서 중요한 화소로 보이는 것을 모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설문대할망은 옷을 한 벌 지어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주기로 제주민과 약속했다. 그러나 옷감이 1동 부족하자 옷은 완성할 수 없었고 다리놓기는 중단되었다. 지금도 각 처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표8] 連陸橋놓기 각편 분류

61) 설문대할망에 대한 異稱은 지역, 구연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주20)에서 주26)까지의 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 이칭은 다음과 같다.

선문대, 선문데, 설문데, 설맹디, 설명두, 설명주, 설명지, 설명대, 세명뒤, 췌명디, 췌명디.

이들중에는 설명주, 설명지처럼 설문대할망의 連陸橋놓기 유형담의 명주옷을 연상하게 하는 이름과 세명뒤, 췌명디, 췌명디처럼 제주 고양부 ‘삼신인의 뒤’라는 지위 그리고 선문대의 ‘대’는 큰 키의 大를 연상하게 한다. 또한 설문대는 선문대의 자음동화로 보고 싶다.

그리고 이들 이칭은 초기 채록 당시에는 ‘설문데’, ‘선문데’로 쓰이다가 점차 ‘설문대’로 정착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었으며 구연자들이 일반적으로 ‘설문대’로 부르는 반면 학계에서는 ‘선문대’로 정착해 나가는 것 같다. 본고는 각편 구연자들의 부르는 명칭인 ‘설문대’를 따르고자 했다.

62) 『제주설화집성』 (1) 앞의 책, 511쪽. 김병수(남, 82세) 애월읍.

| 책이름 | 구연자 | 구연지 | 옷 종류 | 필요한 양 | 부족한 양 | 목표 지역 | 다리놓기 흔적이 남은 곳 |
|------------|------------|---------|------------|-------|-------------------------|-------|---------------|
| 제주도 전설 | 현용준 | 제주시 | 속옷 | 100통 | 1통 | 육지 | 조천 앞바다의 곳 |
| 제주도 전설 | 홍성흡 | 표선면 표선리 | 속옷 | 100통 | 1통 | . | . |
| 대계9-1 | 안용인 | 김녕리 용두동 | 소중기 | 100필 | 1필 | 추자도 | 조천 앞바다의 곳 |
| 제주도 전설 | 김석보 한공익 | 성산읍 고성리 | . | 100통 | 1통 | 육지 | " |
| 대계9-2 | 송기조 | 제주시 오라동 | 치마같은 옷의 허리 | . | . | 목포 | " |
| 제주설화 집성 | 김병수 | 애월 | 속옷 | . | 50통 으로도 부족 | 진도 | " |
| 제주설화 집성 | 오문복 | 성산 | 속옷 | . | . | 완도 | " |
| 국문학보 10 | 김수동 | 조천 | 두루마기 | . | . | 육지 | " |
| 국문학보 11 | 김차옥 | 구좌읍 한동리 | 속옷 | 100통 | 1통 | . | " |
| 한국구전 설화 | 고홍규 | 제주시 이도동 | 잠뱅이 | . | . | 육지 | " |
| 한국의 신화 | 이씨 | 한림읍 | 속옷 | 100통 | 1통 | 육지 | 한림앞바다의 곳 |
| 한국의 신화 | 이갑순 | 중문 | 갈중이 | . | 한 쪽 바지밖 에 못 만들 | 육지 | 모슬포 앞바다의 곳 |

| | | | | | | | |
|------------|-----|------------|----|-------|----|-----|--------|
| 한국구전 설화 | 오운범 | 표선면 표선리 | 속옷 | 100필 | 1필 | 백사장 | 표선 백사장 |
| 한국의 신화 | 고씨 | 표선면 | 속옷 | 만들어 줌 | | 백사장 | 표선 백사장 |

기록에 의하면 탐라는 육지와와의 교역과 왕래에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배를 이용했다.⁶³⁾백제 이후 한반도의 속국이 되면서 해상 왕래는 더욱 잦아졌고 조공 문제는 뱃길의 고역을 더욱 가중시켰다. 한반도와의 관계는 전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바다에 빠져 죽은 이들 중에는 육지를 오가는 바닷길에서 조공물과 사신을 나르다 바다에 묻히는 사람이 많았다. 제주인에게 連陸橋가 있었다면 천형의 땅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설문대할망은 그런 제주인의 마음을 알고 다리를 놓아주마고 했다.

連陸橋놓기는 유형담 중 전도에서 최다 채록⁶⁴⁾되고 있듯이 제주인에게 일대 사건을 의미한다. 그리고 오랜 세월 전승되는 동안 지역에 맞게 변이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단순하지 않은 제주민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로 풀어내고자 한다.

첫째, 명주옷의 의미와 둘째, 다리를 놓다 중단된 지역은 어떤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으며 셋째, 옷을 완성할 수 없었던 것이 옷감이 1동 모자람으로 전승되는 이유와 넷째, 連陸橋놓기의 실패가 갖는 궁극적 의미이다.

첫째, 명주옷이 갖는 구체적인 의미와 신화적 제의 가능성을 살펴 볼 수 있다.⁶⁵⁾ 명주는 고려시대 삼별초의 항쟁 과정 중 고려 본토에서 섬으로 전

63) 마한 서쪽 바다에 큰 섬이 있는데 그 곳은 州胡다. 이곳 사람들은 배를 타고 마한을 오가면 물건을 사고 팔았다 한다. 州胡는 탐라의 옛이름이다.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條)

高昌錫 편저, 『耽羅國史料集』, 신아문화사, 1995, 237쪽 참조.

64) 각주 36) 참고.

65) 거인이 옷을 간절히 원하고 인간은 또 옷을 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에 인

해진 문물이다⁶⁶⁾. 삼별초 이후 누에치기 기술이 도내에 널리 퍼져 민간에서 이용했으나 일제 때 명주 3필이면 밭을 샀다했으니 그 값은 무척 비쌌다⁶⁷⁾ 그러므로 할망이 명주로 옷을 지어달라는 것은 당시 제주에서 가장 비싼 옷감으로 최고의 옷을 지어달라는 요구였다.

명주로 만든 옷은 대체로 속옷이다. 그 중 옷의 허리, 두루마기, 갈중이, 잠뱅이로 애기되기도 하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성준은 원래 속옷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설문대할망은 신적 믿음의 존재였으며 신성성의 약화와 더불어 민담화 과정을 거치면서 흥미화소 화되었음을 입증하고자 했다.⁶⁸⁾ 따라서 옷 종류가 속옷이 된 것은 변이의 결과이며 옷은 巨神이 다리 놓기의 조건으로 도민들에게 제시한 神衣였을 가능성이 있다. 옷을 祭儀에 필요한 제수로 본다면 설화의 신화의 제의 가능성을 따져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굿은 신을 모시는 신당에서 신에게 제물로 음식을 대접한다. 하물며 의식주의 하나인 옷을 지어 제의로 삼지 않을 리 없다. 오늘날에도 신당 중에는 신의를 모셔 놓는 곳이 있으며 굿을 할 때 옷이나 실, 무명 등을 올리는 것과도 관련을 추측해 본다.⁶⁹⁾

간이 옷 또는 옷감으로 거인 신격에게 제를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

권태효, 「거인설화의 전승양상과 변이유형」, 앞의 글, 52쪽.

66) 김봉옥, 『제주통사』, 1987, 61~62쪽.

67) 명주 길쌈은 삼한 시대에 이미 일반화되었으나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일반인에게 널리 이용되지 못했었다. 그러던 것이 조선왕조의 권잠 정책으로 명주의 질이 좋아졌다. 그러나 소수 특권층은 중국산 비단을 선호해 겉감으로 명주를 사용한 예는 드물었다 한다. 반면 서민들의 혼수감, 명절옷, 수의로 애용되었다.

조효순, 『한국복식풍속사연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8, 26~27쪽.

68) 이성준, 앞의 책, 71~72쪽.

69) 제의는 유교식 마을제인 酬祭와 개인의 신앙 형태인 堂이 있다. 포제의 제물에는 곡식류, 과일류, 채소류, 육류, 모혈, 幣帛이 쓰인다. 이중 폐백은 무명, 광목, 베 그리고 백지를 올렸다. 堂의 제물은 포제보다 약식으로 치러졌는데 제물로 백지, 무명, 명실, 지전, 물색 등이 쓰이곤 했다. 또한 神木에도 지전과 물색(삼색 물을 들인 천)을 걸어 놓는다. 이 밖에 당집에 神衣를 걸어 놓는 '추자도'의 당이나 옷을 개인적으로 바치는 '하도리'의 풍습으로 보아 신의가 제의의 제물일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옷을 해달라는 설문대할망의 요구는 제수의 조건이었고 당시 가장 좋은 옷인 명주옷이어야 했다.

둘째, 제주도에 남아 있는 다리를 놓다만 흔적이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곳은 조천 앞 바다지만 드물게는 각편 한림 이씨의 ‘한림꽃’과 중문 이갑순의 ‘모슬포꽃’도 전한다. 제주를 빙 두른 바위 줄기는 많다. 그러나 특히 조천 앞 바다가 다리놓기 장소로써 집중되고 있고 다리놓기의 종착지역도 추자도, 진도, 완도⁷⁰⁾ 등 섬들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한반도 본토에 육로로 닿고자 하는 열망은 동일하다.

조천이 다리놓기 장소로 대표적인 이유는 지역적 요건 때문이다. 조천은 예로부터 제주의 포구로써 사신이 드나들던 자리였다.⁷¹⁾ 사실 제주 포구가 조천 하나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화북, 애월, 산지 등 북쪽인 해안지방에 넓게 분포하고 있었지만 조천이 갖는 지리적 이점으로 대표적인 포구로 조선 이후 자리하였다.

이밖에도 북제주군 대부분의 바닷가 곳곳마다 連陸橋 유형담이 있었다고 전하는데 예로 한림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한림이 다리놓기의 장소로 각편화된 것은 한림에서 채록된 각편이라는 자료의 한정성 때문만은 아니다. ‘連陸橋놓기’ 자체가 북제주군 전체가 아닌 서쪽에 한정되어 유형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대학교 박물관 편저, 『북제주군의 문화 유적』 II, 1998. 34~138쪽.

70) 요즘도 배편으로 섬을 나갈 때 부산(160마일), 목포(96마일), 추자-진도-목포(92마일), 완도(57마일)이라고 하니, 부산과 목포는 꽤나 먼 항로며 완도, 진도는 부산에 비해 제주에 가는 가장 가까운 교통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지역적 교통여건은 예전도 마찬가지로 추자도를 기점으로 제주를 왕래하는 길목인 섬들을 염두에 두고 진도, 완도, 추자도까지 다리놓기를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71) 지금도 조천 포구에 가면 戀北亭이란 정자라 있다. 멀리 바닷가 한눈에 들어선다. 제주를 드나드는 배들의 등대였었다는 관탈섬이 왼편으로 보여 전망이 시원스럽게 들어온다. 戀北亭은 사신들이 임금님이 계신 북을 바라보며 소식을 기다리거나 사신영접을 가던 곳이었다.

명월포, 애월포는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대표적인 포구였으며 제주시 서편에 위치한다.⁷²⁾ 명월은 바로 현재 한림의 포구이다. 제주시 동편인 경우 현 무암 절벽으로 천연항만 조건으로 적합치 못했다. 따라서 한림은 고려시대까지 육지 운송로로 그리고 조천은 조선시대의 항로의 변경으로 생겨난 화소로 볼 수 있다.

모슬포는 조천, 한림이 육지에 다리놓기를 열망하는 의지인데 반해 그 위치가 남서쪽이어서 바로 앞의 마라도와 가파도에 닿고자 하는 지역민의 변이로 생겨난 각편으로 봄이 타당하다⁷³⁾.

따라서 조천, 한림, 모슬포는 지리적 특성상 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역사적 지역적 특성에서 각편화된 것이다.

셋째, 한 동 부족으로 다리놓기가 중단된 이유를 살펴보자. 옷을 지을 때 필요한 옷감이 100통이라면 부족분은 1통이다. 100동의 1동, 100봉의 1봉, 100필의 1필 등 통, 동, 봉, 필로 단위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100에서 1개가 모자라 99로 남는다는 점은 동일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옷감의 양이 아니라 100을 채울 수 없었다는 것이 된다.

100이라는 수의 의미는 중요하다. 99가 미완의 아쉬움과 한이라면 100은 차고 넘치는 새로운 단위의 시작이다. 100일 기도,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에 돌잔치 하는 것, 부부의 백년가약, 100년 넘은 여우는 신기가 넘쳐 둔갑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100을 앞두고 단지 1개가 모자라 99로 남

72) 오홍석은 고려시대 제주 서쪽 포구가 일찍 생긴 이유를 지형적 특성과 더불어 네 가지로 설명하였고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르자 시간과 공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조천 해로를 이용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오홍석, 「범선 항해시대의 제·경 해로」, 『제주도연구』 1집, 제주도연구회, 1984, 98~100쪽.

73) 성산에서도 連陸橋놓기 변이형이 전한다. 성산 앞 바다에서 우도까지 다리를 놓아주마 했다고 지역민은 전한다. 「성산」, 성산 국민학교, 1987. 27~28쪽.

따라서 제주 유인도인 가파도, 마라도, 우도에 모두 連陸橋놓기 설화가 변이형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 있다는 것은 단순히 옷감 크기의 문제가 아니며 일종의 ‘99미완설화’와 같다.⁷⁴⁾미완의 수 99는 흥미위주와 극적 전환을 위한 장치로 설화에서 중요한 모티프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다음을 들 수 있다.

- (1) 500장군은 실제로 499명으로 막내는 차귀도 앞 바다의 ‘장군바위’ 또는 서귀포시 앞 바위 ‘외돌괴’로 남아 있다.⁷⁵⁾
- (2) 성산 일출봉의 분화구를 감싸는 봉오리는 499개이다.⁷⁶⁾
- (3) 한라산은 원래 100골이었으나 중국의 승이 민심을 속여 주문을 외게 하자 맹수들이 모두 한 골짜기로 모여 골짜기와 함께 사라져 버렸다.⁷⁷⁾

넷째 결국 連陸橋놓기 실패가 갖는 설화상의 의미는 설화의 가장 중요한 전승 요건이 될 것이다. 連陸橋 실패 이후 도민의 할망에 대한 인식이 두 가지로 양극화되었다. 다리놓기를 중단한 할망의 행동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⁷⁸⁾은 결국 할망의 죽음으로 설화를 결론짓고, 순응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牛羊虎獅의 환란으로부터 제주가 안전하게 살아 남을 수 있었다며 제주의 수호신으로 인식하고 있다.⁷⁹⁾

이제 連陸橋놓기 유형담이 지닌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주 옷은 신화적 祭衣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조천, 한림, 모슬포의 곳에 다리

74) 최래옥, 『한국구전설화의 연구』, 일조각, 1981. 168쪽.

명주 1동 모자람의 의미와 99미완설화와 동일성은 허춘에 의해 먼저 제기된 바 있다. 허춘, 앞의 책, 544쪽.

75) 『서흥로』, 향토지 발간위원회, 1996, 304쪽.

76) 『백록어문』 11, 앞의 책.

77) 『노형』, 노형 국민학교, 1987, 19~20쪽.

78) 『백록어문』 11, 앞의 책.

79) 『대계』 9-2, 앞의 책.

놓기 흔적이 남아 있는 이유는 그 지역의 지리적 여건상 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지역민의 의지였다. 셋째, 옷감 1통 부족분의 의미이다. 옷을 완성할 수 없었던 1통 때문에 다리놓기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흥미화소가 들어간 것은 속옷이란 화소와 더불어 민담화의 영향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설문대할망이 더 이상 신앙의 힘이 될 수 없었다는 신성의 소멸을 의미하고 있다. 이점은 넷째, 다리놓기 실패가 그 이후 한편으로는 할망을 죽음으로 몰아 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그래도 살만하지 않느냐는 지역민의 자긍심에서 엿볼 수 있다.

1.7. 키자랑 · 죽음

설문대할망은 물장오리에 들어갔다 빠져 죽었다.

[표9] 키자랑 · 죽음 각편 분류

| 책이름 | 구연자 | 구연지 | 빠진 곳 | 빠진 이유 | 죽음 시인 |
|--------|-----|------------|------------------|-----------|--------------|
| 제주도전설 | 현용준 | 제주시 | 용연, 홍릿물, 물장오리 | 키자랑 | 빠져 죽었다. |
| 대계9-1 | 안용인 | 김녕 | 죽은 장오리 | . | 빠져죽었다. |
| 백록어문10 | 고신봉 | 제주시 회천 | . | 목욕 | 빠져죽었다. |
| 한국구전설화 | 고홍규 | 제주시 이도동 | 용소,홍리물, 물장오리 | 물깊이를 잼 | 빠져죽었다고 전함 |
| 한국의 신화 | 고삼립 | 구좌읍 송당리 | . | . | . |

할망은 키자랑을 좋아해서 용연에 발을 담그니 발등에 닿고, 홍릿물은 무

를까지 닿았다. 마지막으로 한라산에 있는 물장오리에도 발을 집어넣었으나 그만 빠졌다⁸⁰⁾. 결국 巨神은 자신의 키보다 작은 산정호수에서 죽고 말았다. 이것은 ‘連陸橋농기’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된 유형담의 결과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설문대할망을 제주 수호신으로 바라보고 싶어한다⁸¹⁾. 따라서 설문대할망의 죽음은 복합적 양상을 띄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용연, 홍릿물, 물장오리에서 키자랑한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거녀가 결국 물에 빠진 것으로 전승되는 이유와 셋째, 거신의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첫째, 먼저 키자랑한 장소인 용연, 홍릿물, 물장오리의 지역적 공통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 곳에는 물이 늘 고여 있다. 화산도인 제주는 대부분 건천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고 지하수가 해안 가 근처에서 솟아나는 특징이 있다. 용연은 제주시 내천 하류에 있는 못이고 홍릿물은 서귀포시 하천이다. 제주의 지하수는 한라산 남북 방향으로 발달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인 경우 정북, 정남이라 한라산 골을 이룬 형상이라 수량이 풍부하다. 따라서 이곳은 천혜의 자연 취락 조건을 이루었다.

물이란 수렵인들에게 보다는 농경인들에게 절대적인 삶의 조건이다. 비가 오지 않아 날이 가문다는 것은 생계수단을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가뭄이 들면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기우제를 드렸다. 제주에서 영험한 기우제 장소는 용연과, 물장오리가 대표적이다. 용연에서는 기우제를 드리면 용이

80) 한 편으로는 500 아들들에게 줄 죽을 끓이다 실족하여 죽 속에 빠져 죽었다고도 한다. 이것은 변이형에 해당하며 IV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81) ‘98 제주’ 전국체전 개막식에 설문대할망이 성화 장치대로 등장했다. 설문대할망은 제주의 전설적 수호신으로 소개되었다.

「한계레」 1998년 9월 26일자 1면.

하늘에 오르는 형상이 일어나고 비구름이 몰려온다고 한다.⁸²⁾용연이란 지명 역시 용이 사는 못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듯이 물수량이 풍부한 곳이며 용과 비구름을 부르는 의식은 관계가 있다. 물장오리에서 흑룡과 황룡의 싸움을 목격했다는 얘기⁸³⁾등도 전한다. 용이 비구름을 주관한다는 사고는 한 반도 어디서나 발견된다. 그런데 용에게 용왕제를 드릴 때 용이 사는 곳에서 지내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海龍이라기 보다는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용으로 보인다.

기우제란 비가 내려서 땅에 물을 충분히 적셔주길 어떤 대상에게 간절히 원하는 행위다. 비가 많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제주 지표는 건천을 따라 흘러내리는 물의 양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형이 현무암이라 물이 땅에 잘 흡수되므로 땅에서의 홍수란 드문 일이고 내를 따라 물이 바다로 빠르게 흘러들기 때문에 물이 고일 수 있는 곳이란 제주도에 흔치 않다. 용연, 흥릿물은 사철 물이 고여 있는 못이며 물장오리는 몇 안 되는 산정호수다.

설문대할망이 처음 발을 담근 것은 용연이다. 물이 발등 정도로 차 올랐고 용연의 저장 수량을 가늠할 수 있다. 다음은 좀 더 물이 깊다는 흥릿물은 무릎까지 다왔다. 수량이 용연보다 풍부한 곳이다. 물장오리는 할망이 빠져 나올 수조차 없이 늘 물이 땅 끝까지 차고 넘치는 못이다.

따라서 설문대할망의 죽음은 물장오리가 갖고 있는 수량을 증명해준 사건으로 제주도가 아무리 가물어도 살아 남을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설문대할망이 물장오리에서 죽었다고 전하는 구연자들 역시 할망에 대한 서운함과 물장오리의 거대한 수원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설문대할망의 죽음은 허망하다고 할 수만은

82) 『제주도전설지』, 앞의 책, 69~71쪽. 안사인(남, 69세) 제주시.

83) ‘짚신장수와 물장오리 황룡’, 『제주설화집성』 앞의 책, 48~52쪽, 김승추.

‘황룡을 도와 준 사람과 흑룡’, 280~281쪽, 오문복.

없다.

둘째, 巨女의 죽음이 갖는 긍정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신화의 신들은 죽지 않는다. 신화란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신으로 추앙되는 왕들의 죽음은 입산이나 죽어 재생의 이미지를 띠기 마련이다. 설문대할망의 경우, 죽음은 재생이나 부활로 연결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예전에 설문대할망은 巨神으로 신앙시 되었다. 큰 외모는 신적인 믿음을 드러내는 용모이고 다리놓기를 통해서 제주민의 삶의 희망을 의탁했다.

설문대할망은 제주를 만들었으며 한라산과 기타 여러 제주의 자연형상을 만들어낸 신이다. 제주의 태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설문대할망 설화의 생성시기를 그만큼 오래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 堂신앙에는 본풀이 내력담이 있기 마련이나 설문대할망 설화는 일정한 본풀이가 따로 전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설문대할망 설화가 당신앙적 차원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이성준의 「설문대할망 설화 考」에서는 설문대할망이 산신이며⁸⁴⁾조선조 이후 산신신앙이 쇠퇴하여 그 사설을 제대로 알 수는 없으나 1950년대까지 산신본풀이에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준은 설문대할망은 산신이었으며 산신 본풀이 역시 있었다고 확신했다.

셋째, 설문대할망 죽음이 갖는 의미는 민간신앙에서 검토가 가능하다. 설문대할망은 제주의 민간신앙 속에서 생성, 소멸하였기에 먼저 제주 민간신

84) 산신을 도교에서는 종교화하여 중국에서는 일찍이 발달하였다. 도교의 산신은 불로장생을 기본으로 도를 닦는 이이다. 즉 사람이 수련을 통해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종교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민간에까지 널리 퍼졌던 도교는 우리 나라에서는 교세가 그리 확장하지 못하였다. 우리 나라의 민속신앙으로서의 산신은 도를 터득한 산신이라기보다는 산의 영험을 지니는 산의 혼이다 그러므로 산에 거하며 수도에 정진하는 산신과 우리 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숭앙 시 해온 산신과는 차이가 있다.

김용덕, 「단군신화와 신선사상」, 『한국민속학』 17, 1984, 32~37.

앙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제주는 예로부터 무속신앙이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제주에서 무속 외 다른 종교가 뿌리내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조선조 때 이형상 목사가 제주를 절 500, 당 500이라 하고 제주의 당과 절을 모두 미신이라며 부수어 버렸다. 대신 유교를 장려했다. 당과 절이 모두 무속적 성격이 강하였고 당과 절을 한 가지로 봄을 알 수 있다. 즉, 제주의 신앙은 일찍이 형성된 기본 토착 신앙이 무교, 불교와 유착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제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며 한반도 민간종교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제주는 한반도와 역사적 지리적 고유성을 갖는 孤島로써 독특한 문화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먼저 제주 토속 신앙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가장 원시적인 신앙의 형태가 그러하듯이 산, 강, 奇巖 등 자연에 부여한 애니미즘 신앙에 해당한다. 설문대할망 설화 역시 마찬가지다. 할망의 행동은 산, 오름, 섬, 기암괴석과 연관되어 증거물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치적 예속을 다진 고려 시대에 무교와 불교가 제주로 함께 민간의 퍼져갔다. 무교의 일반적인 기원을 두고 고유 단군이래 또는 시베리아 샤머니즘으로 두기도 한다. 화랑은 그 기원이 신라시대 또는 단군 시대까지 들 수가 있어 문자기록시대로 접어들면서 생겨났기에 향가나 기타 자료를 이용하여 화랑과 무속을 연관지을 수 있고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경우 비교문화적 접근을 통해 서로 유사성을 살펴볼 수가 있다.

제주의 무속신앙 역시 한반도에서 도래한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다. 당을 비롯한 당신앙 본풀이를 보면 그 무조신들이 한반도나 중국에서 도래한 경우가 많은 것도 한반도 도래설을 뒷받침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련 사항을 두고 볼 때, 제주의 당을 비롯한 무속신앙은 자연 토속신앙에 다시 무속신앙이 결부된 것으로 보인다. 불교인 경우 도래설이 여러

가지 있으나 삼국시대 불교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고 삼별초의 입도와 더불어 본격화되었다고 보는 학설이 있다⁸⁵⁾. 삼별초는 그후 오랜 제주 몽고 침략기 시작을 의미한다. 몽고의 오랜 지배 속에서 제주에는 불교 문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불교는 무속신앙과 적대적인 대립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한반도에서의 불교의 무속적 융화와 한가지로 무속신앙과 불교의 결합 속에서도 독립적인 독특한 신앙을 이루어냈다⁸⁶⁾. 제주의 불교는 한반도보다도 더 강한 무속신앙과 결합관계에 있었다. 승이 결혼하는 것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고 불교를 또 하나의 당신앙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려 국교가 불교였으므로 제주 명산에는 큰 불사가 들어섰다. 그러나 지금은 다 타고 흔적만이 남아 있어 옛날의 영화를 재현하지 못하고 있다. 불교 역시 제주에서는 일반 무속신앙의 우위로 습합되어 존재한다.

유교의 경우 조선조가 排佛 정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향교가 담당하게 하고 사당을 세워 기리게 했으며 조선은 정책적으로 사당에서 성현과 조상을 모셨다. 그런데 당 신앙 역시 조상신을 모시므로 이런 유교의 조상숭배와 한 가지로써 자연스럽게 당시 선진 한반도 문화를 자처한 유교 문화를 받아들여 무속신앙의 제의를 유교식으로도 했다. 즉, 제주의 신앙은 토속신앙의 뿌리 속에서 무교를 우위에 둔 불교, 유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고려 이후 설문대할망 신화는 민담화 되었음은 ‘지형 형성’과 ‘사냥·고기잡기’에서 확인한 바 있다. 설문대할망은 고려 이전 신앙의 단계이며 그 이

85) 김봉옥, 앞의 책, 77~78쪽.

86) 불교와 무속은 신관, 제의, 종교적 사고체계, 신도의 태도 면에서 서로 교류되어 상호 의존 관계를 이루었다. 그 원인은 기절에 깔린 ‘원본’사고의 未分性이 일차적이며 불교가 한국적 토양 위에서 성장해야 했기 때문에 자연히 재래의 무속 신앙 내지 민간신앙의 요소가 되었다.

불교에서 모시는 무속신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산신이다. 불교의 산신신앙은 불교 원래의 것은 아니며 한국의 전통적인 산신이 후기에 불교에 영입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곤, 「무속과 불교의 습합」, 『한국민속학』 19, 1986. 163~173쪽.

후 차차 믿음의 신성을 상실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설문대할망은 고려 이전 종교인 제주 토속신앙으로 볼 수 있다. 그후 토속 신앙은 무속과 습합이 가장 원활하게 이뤄졌고 설문대할망은 산신 신앙으로 자리하다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⁸⁷⁾

설문대할망의 죽음과 관련하여 죽음의 흔적을 본 이는 없지만 죽었다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다. 여기에서 설문대할망은 산신이지만 죽었다는 얘기가 되고 말아 기현상을 낳는다. 신의 죽음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 나라의 왕이나 유명한 인물들 중에는 죽어서 그 흔적이 사라졌다거나 산으로 들어가 산신이 되었다는 얘기가 종종 나온다. 그들은 인간적인 죽음을 극복하고 있어 설문대할망과 정반대가 된다. 즉, 제주 설문대할망 설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문대할망의 죽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설문대할망은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이야기는 더 이상 전하고 있지 않다. 제주의 풍부한 물의 양을 알려 주는 일로 삶을 마치고 있다. 애니미즘 신화로서의 설문대할망을 상정할 경우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는 ‘재생’이나 ‘부활’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인간적인 죽음으로 남는다. 물에 빠져 죽었으며 더 이상 아무도 설문대할망을 본 이가 없기 때문이다.

설문대할망은 신앙의 대상으로 존재했었음은 확실하다. 다만 현재 제의와 신성성을 상실하고 민담화 과정을 거쳐 기인담으로 인식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 견해다. 그런데 설문대할망의 죽음은 부족원시 신앙인 경우 늙은 왕을 죽여 희생양으로 삼는 종교적 현상을 닮아 있다⁸⁸⁾. 노쇠한 왕 죽이기

87) 산신신앙은 지금도 그 맥을 잇는 이들이 있다. 불교계에서 불교식의 산신 모심과 무속인의 산신 모심 그리고 유교의 유교식 산신제가 있다. 산신은 각각 무교, 불교, 유교보다 앞서 민간에 퍼진 신앙이다. 산신을 그린 초상화 역시 미술계에서는 불교식, 유교식으로 훗날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산신은 보다 민간신앙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는 신앙의 하나로 존재한다. 설문대할망 역시 종교적 믿음이 오랜 시기에 해당하며 죽음 자체로 제주는 결코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을 소유하고 있다는 믿음을 제주민에게 남겼다고 할 때 희생양으로서의 왕 죽이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제주민에게 물이란 삶의 양면성을 지닌 중요한 것으로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물이란 풍요의 수확을 의미하고 있으나 비가 오지 않거나 샘이 마르게 되면 큰 재앙으로 작용했고 또한 섬에서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것은 일상적인 죽음의 한 가지일 뿐이다. 따라서 설문대할망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은 처음에는 제주민에게 신성의 하나의 인식이었으나 더 많은 시간이 흐르자 인간적인 죽음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어쨌거나 오늘날 설문대의 인간적인 죽음의 형식은 신앙의 소멸을 의미하며 그 소멸의 정도는 물장오리가 있는 지역에서 설문대에 대한 기타 설화나 제를 찾아볼 수가 없기에 신앙으로서는 더 이상 자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추측케 한다. 그러므로 설문대의 죽음은 인간을 위한 신의 마지막 나뉼춤의 의식으로 신성성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인간적인 죽음으로 인식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증거담

2.1. 족두리석

빨래하던 중 숙인 머리⁸⁹⁾에서 떨어진 족두리석이 남아 있다.

88) 프레이저(김상일역), 『황금의 가지』 上, 을유문화사, 1996, 341쪽.

89) 족두리석이라도 하며 족두리처럼 생겨 할망이 쓰던 모자라고 한다.

[표10] 족두리석 각편 분류

| 책이름 | 구연자 | 구연지 | 발을 디딘 곳 | 빨래한 바다 | 빨래의 결과 |
|-------|-----|------------|--------------|--------|--------------------------|
| 제주도전설 | 현용준 | 제주시 | . | . | . |
| 대계9-2 | 송기조 | 제주시 오라동 | 사라봉, 물장오리 | 산짓물 | 머리 속이다 모자가 떨어 졌 다. |

족두리석은 원래 ‘빨래하기’ 행위담의 한 형태다. 그런데 『대계』 9-2에서 보듯이, 빨래했다는 행위보다 빨래의 결과로 생긴 결과물 “족두리석”이 구전의 중심이 되고 있다. 즉, 모자처럼 생긴 기암의 유래를 밝혀주는 유래담이다.

발을 디딘 곳은 섬이 아니며 제주시 해안 가에 있는 사라봉과 한라산 북쪽에 있는 물장오리란 오름이다. 그리고 빨래하던 곳 역시 바다에서 한라산에서 제주시로 흐르는 한천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빨래하기’ 유형담에서 섬에 발을 디디고 바다에서 빨래하는 것에 배해 ‘족두리석’은 행동 반경이 훨씬 적어지고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빨래의 결과 머리에 써있던 모자가 떨어졌는데 족두리석이 제주시에 위치한 한천에 있기 때문이다⁹⁰⁾.

이 돌은 직경 4m 정도의 둥그런 모자 모양의 돌이다. 돌 모양이 모자 같아 설문대할망의 족두리석이라고 하던 것을 그후 李氏族의 조상을 기리기 위한 조상 돌로 조각되어 어의의 와전을 보여 신성성이 소멸했음을 보인다.

90) 한천이 있는 제주시 오라동 향토지에 의하면 족두리석은 지석묘라 한다. 오라1동남쪽 한천 한 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돌 모양이 족두리와 같다고 해서 족두리석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족두리석에는 언제 누군가 새겼을 지는 모르나 “族頭石 慶州李元欽惠여表成年 이라 써있다고 한다.

따라서 족두리석 유형담은 ‘머리’라는 화소만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변이는 제주시 한천 지경에만 전승되고 있는 증거담의 한계성으로 보인다. 즉, 설문대할망 설화의 변이요소가 할망에서 벗어난 ‘우두머리’라는 상징성으로 전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솔바리

밥을 지어먹던 品字 모양의 솔걸이가 남아 있다.

[표11] 솔바리 각편 분류

| 책이름 | 구연자 | 구연지 | 장소 | 바위이름 | 바위 모양 | 용도 |
|-------|-----|------------|----|------|-------|---------|
| 제주도전설 | 이자영 | 고산 | 애월 | 솔덕 | 바위3개 | 밥해 먹던 곳 |
| 한국의신화 | 고삼림 | 구좌읍 송당리 | 송당 | . | . | . |

솔바리는 品字形 바위로써 밥을 할 때 솔을 걸어두던 솔바리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개의 큰 돌의 크기로 보아 그만큼 솔을 걸어둘 이로 설문대할망을 염두에 둔 듯하다. 할망이 밥을 지어먹던 곳으로 여겼을 것이다.

솔바리는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부엌 도구다. 난방과 조리열 기능을 함께 하던 육지 부엌과는 달리 기후가 따뜻한 제주에서는 조리열 기능만을 하던 솔바리를 사용했었다.

그런데 이 品字形 바위는 들판에서 발견되고 있다. 솔바리는 부엌 한 쪽 벽면에 두었으며 형태는 받침돌 3개를 品자형으로 배열하여 돌이 솔의 옆면만 걸어두게 되어 있다. 따라서 솔바리는 부엌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상관없이 밥을 해 먹을 곳에 놓아 둘 수 있었다.

이 돌 3개는 애월과 송당리에서 할망이 밥해 먹던 조리기구라 하는데, 송당리의 '솔바리'는 바위들간의 거리나 크기로 보아 고인돌 같다고 역사지리학자들은 주장한다.⁹¹⁾

제주의 다른 지역에도 지석묘는 발견된다. 그러나 유독 애월과 송당에 있는 기암이 설문대할망의 솔바리로 전하고 있다. 다른 지석묘들 역시 그 지역에서 설문대할망의 솔바리로 전해지다가 전승이 중단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설화가 아니라 지금도 남아 전하는 것이 있다는 점이다.

그 전승 조건으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송당과 애월의 지리적 취락조건이 갖고 있는 구전력이다⁹²⁾.

애월은 비교적 빠른 시기에 취락적 조건을 갖추어 사람들이 살았으며, 실제로 일제시대에 애월에 살았다던 애월 할망은 설문대할망을 신으로 여기고 설문대할망이 오면 신기겠다면 버선을 짓고 있었다 전한다.

송당은 제주 당신의 고향이며 이른 시기에 목축 주거 단지 화하였다. 제주 堂神의 본산지 격이 바로 송당이기 때문에 송당이 갖고 있는 의미는 생각해 볼만하다.

2.3. 등경석

할망은 등경석에 불을 켜고 바느질을 했다. 그런데 등이 낮아 불편

91) 장주근, 앞의 책, 6쪽.

92) 제주시를 제외한 제주 취락의 최초 기록은 고려시대다. 고려시대는 지정학적 조건으로 선사시대 이래 제주 서쪽 해안가에 취락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었다.

애월은 최영 장군이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상륙한 곳으로 한반도와의 빈번한 교류, 군사상의 요지, 교통 등으로 관문적 역할을 하던 곳으로 일찍이 형성된 취락이다. 반면 송당은 忠烈王 3년 元의 軍馬 생산을 위한 목마장을 중산간에 설치하면서 발생한 취락이다. 감독관과 목자 등이 상주할 주거장소의 필요성으로 제주 동편 중산간 송당, 성읍 지경에 취락을 이루었다.

오홍석, 『취락지리학』, 교학사, 1982. 122~124쪽.

하자, 바위 하나를 다시 등경석⁹³⁾ 위에 얹어 등을 높였다

[표12] 등경석 각편 분류

| 책이름 | 구연자 | 구연지 | 하던 일 | 부르던 이름 | 할망의 행위 |
|--------|------------|------------|------|----------|--------------------------------|
| 제주도전설 | 김석보 한공익 | 성산 | 길쌈 | 접시불(술불) | 등잔이 얹자 하나 를 더 얹었다. |
| 국문학보12 | 강창익 | 성산읍 수산리 | . | 등경돌 | 한라산을 만들고 그 주변에 돌을 쌓 아 놓음 |
| 백록어문11 | 김찬옥 | 구좌 | 바느질 | 지름불(기름불) | . |

성산 일출봉 오르막 초원이 끝날 무렵 높다란 바위들이 봉우리를 향해 에워싼다. 그 바위들이 막 나타나는 길목 바로 앞에는 수문장처럼 등경석이 서 있다.

길다란 바위 위에 납작한 바위를 하나 더 얹혀진 형상이기에 “설문대할망 등경석”이라고 부르는데 돌이 얹혀 있는 모양이 누군가가 일부러 하나를 더 얹혀 놓은 듯이 보인다. 이 등경석은 설문대할망이 성산 일출봉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등잔이 얹아 등잔을 높였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는 기암이다.

제주는 三多道라 여자, 바람, 돌이 많다. 돌이 많다보니 등잔도 긴 돌을 세워 등잔대를 삼았었다. 등경석은 등잔 받침대에 해당한다. 제주도에서 기름이나 전기를 이용한 전열기구가 생기기 전에 사용해 온 것으로 길다란 돌을 세우고 돌 위에 술불을 놓아 부엌이나 방에서 사용했었다.

등경석을 닮은 바위는 장신인 설문대가 사용할 만큼 거석이었다는 것과 다시 하나 더 얹었다는 것에서 거석의 모양새를 알 수 있다.

93) 바느질할 때 불을 켜던 돌로 ‘바느질돌’이라고도 한다

이 돌은 등잔대인 등경석 위에 전열기구로써 얹어 있던 것이다. 접시불, 지름불⁹⁴⁾, 등불, 불에 해당한다. 이중 솔불은 가장 오래 된 도구로 상정할 수 있다. 소나무나 송진을 이용해서 불을 밝혔던 방법으로 기름을 사용하기 전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만 해도 제주 민가 부엌에서 등경석 위에 솔가지를 얹어 사용했었다 한다. 접시불은 접시에 불을 담았다는 말로 접시불이 기름불이다. 기름이 불을 밝히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어 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기름이 사용되던 모습을 볼 수 있다.

등경석은 기름 접시나 솔가지를 얹어 두는 오늘날의 스탠드 높이의 등잔대다. 후에 나무로 된 것을 사용하였으며 그 전 형태로 애용되었을 듯싶다.

할망의 행위는 등경석의 모양과 상관이 있다. 등잔이 얹으니까 하나를 더 얹어 사용하였다는 화소는 등잔의 길쌈이나 바느질 용도보다 강조되는 경향을 보인다. 큰 돌을 거석 위에 하나 더 얹을 수 있는 힘의 소유자를 우러르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등경석은 설문대할망의 센 힘과 믿음의 대상으로 적합함을 증명하는 일이다. 지금도 성산을 오르는 이들 중에는 반드시 등경석 앞에서 두 번 고개 숙여 절한다고 한다. 성산 일출봉 분화구에서 말을 방목했다는데 일출봉을 오르는 길은 길이 제대로 나있지 않은 돌밭인 대다가 바람마저 심하게 불어 오르다 다치는 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일출봉을 오르는 이들은 설문대할망에게 무사한 귀행을 기원하곤 했다.

94) 접시불은 솔불이며, 지름불은 기름불의 사투리다.

IV. 설문대할망 설화의 변이 유형과 의미

설문대할망 설화는 각편으로 전한다. 도민의 바람을 설문대할망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믿음의 조각들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각편으로 전승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주의 역사만큼이나 설문대할망 설화도 오랜 세월 전승되는 동안 각편으로 전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각편을 비슷한 종류별 행위와 남아 있는 증거물 중심으로 분류하여 유형담을 10개로 정리할 수 있었다. 내용 또한 신화, 전설, 민담적 요소가 복잡적이며 처음 형태는 신화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시신앙일수록 애니미즘이 강하기 때문에 산, 강, 기암 등에 믿음의 존재를 부여한다. 설문대할망 역시 산, 섬, 오름, 기암 등 자연적 형상물에 설문대에 관한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오랜 세월 전승되어 올 수 있었던 조건으로 이런 증거물이 필요하며 점차 신성성과 제의 상실로 전설이 되었을 것이다.

설문대할망 설화만큼 제주 전역에서 자연적 형상물을 전설적 증거물로 갖고 있는 이야기는 흔치 않다. 그만큼 설문대가 제주인에게 끼친 정신적 영향력은 오랜 세월 계속되었다. 또한 전역에 증거물이 퍼져 있다는 것과 오랜 세월 전 도적으로 전승되었다는 것은 설문대할망의 변이형을 짐작케 한다. 구전설화인 경우 구연자의 취향에 따라 변이가 생기게 마련이다. 설문대할망 설화는 제주 전역에서 각편이 전승되고 있다. 따라서 각편과 설화 변이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설문대할망 설화의 경우, 변이로 구분 지을 수 있는 기준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다. 설문대할망 설화는 각편의 특성상 할망 행위 단독으로 서술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전설적 증거물을 갖고 있으면서 행위의 주체가 바뀌는 경우는 변이형이 된다. 둘째, 설화의 중심이

설문대가 아닌 경우이다. 설문대할망이 다른 이야기 속에 속하는 경우로 각 편으로 전하는 이야기가 스토리를 갖는 설화의 화소로 등장하고 있다.

10가지 유형담에서 변이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지형 형성’, ‘솔바리’, ‘등경석’, ‘죽음’이다. 첫 번째 행위 주체자가 바뀐 변이는 ‘조형’, ‘솔바리’, ‘등경석’이며 둘째 다른 설화의 화소가 된 경우는 ‘키자랑 · 죽음’이다.

1. 행위의 주체가 바뀐 유형

1.1. 지형 형성

한라산과 오름은 설문대할망이 흙을 옮겨 만들었다. 그런데 산방산 유래담은 ‘지형 형성’과 ‘빨래하기’에서 동시에 볼 수 있다.

한라산을 깔고 앉아 빨래를 하자니 엉덩이가 아파 산을 뺏아 버렸다거나 실수로 빨래 방망이를 잘못 휘둘러 산꼭대기를 치자 떨어져 나간 정상이 산방산이 되었다고 전한다. 그런데 산방산 인근에서 채집된 자료 중에는 산방산을 만든 이가 설문대할망이 아닌 각편이 있어 변이설화로 주목된다.

[표13] 지형 형성 변이형의 각편 분류

| 책이름 | 구연지 | 행위자 | 상황 | 문제 | 행위 | 증거물 |
|------------|-------------------|------|-----------------------------|-----------------------------------|----------------|------------|
| 제주설화 집성 | 애월읍 고성리 | 설문대 | 설문대가 한 라산에 앉아 빨래함 | 뽀족한 산정 때문에 엉덩 이가 아팠다. | 산정을 뺏아 던짐 | 백록담 산방산 |
| 대계9-3 | 강창신 대정읍 신평리 | 옥황상제 | 사냥꾼이 노 루를 쫓아 한 라산에 오름 | 옥황의 엉덩 이를 활 쏘다 팔꿈치로 건 드림 | 산정을 뺏아 던짐 | " |
| 사계 | 사계 | 해님 | 사냥꾼이 새 를 쫓아 한라 산에 오름 | 해님의 옆구 리에 실수로 화살을 쏘음 | 산정을 발로 차 버림 | " |

위 자료는 산방산 근방에서 채록된 산방산 형성담을 모은 것이다. 『제주 설화집성』이 일반적인 설문대할망 설화라면, 『대계』 9-3⁹⁵⁾과 『사계』 96)에서는 설문대할망에 대한 언급이 없다. 산방산과 백록담을 만든 주체가 설문대에서 천상적 존재인 옥황상제와 해님으로 변이되었기 때문이다. 설문대할망이 빨래를 하다가 불편해서 산정을 좀 꺾어 버렸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실수에 화가 난 천상적 존재가 너무 높이 오른 인간을 징치하는 이야기가 되었다.

두 유형중 일치하는 화소는 암산, 솟산이란 불리는 것처럼 백록담과 산방산 모양새다. 누군가가 정말 산꼭대기를 뽑아 제주 남서쪽에 던져 놓은 것처럼 보이는 지형의 일치는 전승력을 갖는다.

산방산이 ‘지형 형성’에 속하면서 동시에 ‘빨래하기’에도 전하는 이유는 산방산은 빨래하다 생긴 오름이기 때문이다. 한라산에 앉아 빨래를 할 정도로 큰 외모를 갖고 있던 설문대할망은 산을 만들고 허물어버리는 일을 할 수 있는 큰 키와 힘을 갖고 있는 존재였다.

그런데 변이형의 주체는 옥황상제와 해님으로 인간이 아닌 천상적 존재다. 이들은 한라산보다 더 큰 외모를 가질 필연성을 갖지 않아도 된다. 한계성을 지닌 인간이 아닐뿐더러 산과 자연을 주관하고 인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천상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설문대할망의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옥황상제와 해님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옥황상제는 도교나 무속에서 섬기는 대상으로 산정에 마침 내려온 옥황상제의 엉덩이를 건드린 인간을 징치하고 있다. 하늘가에까지 오르지 못하도록 산정을 뽑아 버린 것이다. 해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변이는 백록담과 산방산의 모양새

95) ‘산방산’, 『대계』 9-3, 1006~1008쪽.

96) 『사계』, 앞의 책, 1987, 28쪽.

가 돌이 똑같다는 산방산 지역 사람들의 관찰력에서 생겨났다. 이들은 한라산 꼭대기를 뽑아 던질 수 있는 존재로 설문대가 아니라 천상적 존재를 믿고 있다. 즉 큰 키를 갖고 있는 설문대할망의 영역이었던 산을 만들고 허물던 일들이 인간이 아닌 존재로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민은 설문대할망과 더불어 산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로 옥황상제나 해님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변이의 또 다른 예는 애월에서도 전한다. 조형 행위담중 한라산을 만들었다는 애월 ‘과오름하루방’이 행위의 주체다.

북제주군 애월에는 ‘과오름’이란 오름이 있다. 그곳에 키가 큰 과오름 하루방이 살았다 한다. 이 하루방은 심심해서 산을 만들었다가 헐어버리는 일을 자주 했는데 어느 날 큰 산을 만들었는데 그 산이 한라산이다. 그런데 갑자기 큰 비가 내려 산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버리자 슬피 울던 하루방이 그만 미끄러져 백록담에 빠져 죽었다 한다⁹⁷⁾.

이 과오름하루방의 한라산과 백록담을 만든 이야기는 ‘조형 형성’에 해당한다. 그러나 과오름하루방이 한라산 이외 다른 산을 구체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전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산을 만든 이가 설문대가 아닌 큰 하루방이라는 거인성과 물에 빠져 죽었다는 점은 설문대가 물장오리에 빠져 죽었다는 점과 일치한다.

이 이야기는 애월 마을지에 마을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실려 있듯이 애월 지역인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여자인 설문대가 아니라 남자라는 사실에서 힘의 우의와 대지의 地母神적 의식은 남성 중심의 사회로 이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설문대가 여성이라는 점은 설문대할망 설화의 생성 시기가 오랜 옛적 신화시대였기에 가능했다.

97) 『애월리』, 앞의 책, 68쪽. 김낙수 (67세) 애월읍.

옛날에는 산신도 여산신이었고 한다. 여성중심의 힘의 사고가 남성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렇듯 산을 움직일 수 있는 설화의 주체는 설문대할망 단독에서 옥황상제, 해님, 큰 하루방, 즉 남성적 존재와 천상적 존재로 변이되어 전한다.

1.2. 솔바리

설문대할망이 밥을 지을 때 솔을 엮었다는 品字 모양인 세 무더기 돌은 애월 곽지 지경과 송당리에 있다고 전한다.

[표14] 솔바리 변이형의 각편 분류

| 책이름 | 구연자 | 구연지 | 장소 | 바위이름 | 바위 설명 | 용도 |
|-----------|-------|-----|-----------|------|--------|-----------------|
| 제주도 전설 | 이자영 | 고산 | 애월 | 솔덕 | 바위3개 | 밥 해 먹던 곳 |
| 애월리 | 마을사람들 | 애월 | 애월, 곽지 사이 | 솔바리 | 돌무더기3개 | 솔 안치고 밥 지어 먹던 곳 |

그런데 마을 향토지⁹⁸⁾에 장군이 갖고 놀던 공기돌인 ‘큰 돌’이 ‘큰 돌 선밭’에 있고 이 돌이 바윗돌 세 개가 品字 모양으로 앉아 있다고 한다.

옛날 이 마을에 큰 장군이 있었는데 장군이 이 바위들을 공기돌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증거담 ‘솔바리’와 같은 돌이다. 이 ‘큰 돌’은 설문대할망의 솔바리에서 변이되었을 듯싶다. 品字形 돌이라는 것과 사용한 이가 큰 돌을 사용할 만큼 장신이라는 점이 일치하고 있으며 위 『제주도 전설』 과 『애월리』 이야기에서도 전하고 있다.

98) 『애월리』, 앞의 책, 31~32쪽. 姜尙奉, 50세.

그런데 제주도에서 장군이라 칭하고 있는 이는 ‘김통정장군’이 대표적이다. 삼별초는 여몽 연합군에 쫓기던 중 마지막 항거지로 진도에서 제주로 대거 이동 항전했다. 이때 삼별초를 이끌던 이가 김통정이다.

삼별초는 고려 원종11년 1270년 11월부터 원종 14년 1273년 5월까지 만 2년 반 동안 제주에서 격전을 벌였다. 당시 고려는 삼별초가 제주에 들어오기 1여 년 전부터 제주가 삼별초의 항거지로 될 것을 짐작하고 제주 고여림에게 군대를 주어 바다 수비를 위해 環海長城을 쌓게 했었다. 2개월 뒤 삼별초가 제주 애월 서쪽에 있는 明月浦로 들어와 제주를 장악했다. 그런데 관군과 삼별초는 당시 제주민의 대부분이 살고 있던 명월-조천에서 싸움을 벌였으나 제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가를 피해 싸웠다 한다. 그 후 삼별초는 애월과 가까운 貴日에 항파두리 토성을 쌓고 근거지로 삼았고 애월에는 목성을 쌓았다 한다. 삼별초가 갖고 온 영향력은 그후 지대했다⁹⁹⁾.

애월은 김통정이 입도 후 목성을 쌓았듯이 수비지역이었다. 바다 포구란 천연 조건으로 인해 육지와와의 오랜 교통수단이었던 애월이 자연스럽게 삼별초의 항거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애월에서 삼별초란 군대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더군다나 입도 후 근거지를 애월과 가까운 貴日에 정했던 만큼 여몽 연합군에 끝내 패한 삼별초 이야기는 민중 속에서 전설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

설문대할망의 솔바리에서 장군의 공깃돌로의 변이는 설문대로 대표되는 제주 자치적 신앙적 믿음에서 보다 현실적 방어를 담당한 장군으로의 현실적 믿음의 대상이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99) 당시 호국불교였던 고려의 문화를 들여왔고 당시 자급자족을 위해 들여온 벼농사와 양잠 기술은 제주민에게 소개되었으며 그후 오랜 몽고의 직접 지배를 받으면서 제주민은 삼별초의 호국정신을 닮고자 했다고 한다.

김봉옥, 앞의 책.

1.3. 등경석

바느질을 하는데 등잔이 얹자 등경석 위에 돌을 하나 더 얹어 겹바위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설문대할망의 큰 바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근거로 한다.

[표15] 등경석 변이형의 각편 분류

| 책이름 | 구연자 | 구연지 | 한 일 | 사용물 | 행위 |
|-------|------------|-----|-----|--------------|--|
| 제주도전설 | 김석보 한공익 | 성산 | 길쌈 | 접시불 또는 솔불 | 등잔이 얹자 하나 를 더 얹었다. |
| 성산 | 강춘화 | 성산 | 바느질 | 불 | 김통정 장군 부인이 바느질을 하다 얹다 하자 장군이 하나를 더 얹었다. |
| 성산 | . | 성산 | . | 등불 | 김통정 장군은 토 성을 쌓고 陳守할 때 불을 밝혔다. |

그런데 성산에서 전하는 등경석 이야기는 설문대할망과 더불어 김통정 장군의 이야기가 등경석에 함께 전하고 있다. 장군부인이 바느질하는데 어둡다고 하자 김통정 장군이 등경석 위에 돌을 하나 더 얹었다 하여 돌을 얹은 이가 김통정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여기서 바느질한 이가 김통정 부인이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돌을 얹은 행위자로서 장군의 위대함을 이야기할 뿐이다.

장군의 위대함은 민간에서 전설화되어 도술을 부러 변신에 능하다는 얘기, 김통정이 지렁이의 아들로 탄생부터가 남다르다는 얘기, 온몸에 철 비늘이 덮여 있어 누구도 장군을 죽일 수 없었다는 것 등 전설이 되었다¹⁰⁰⁾. 김

100) '김통정장군' 『제주설화집성』, 앞의 책, 31~32쪽.

'김통정장군' 『대계』 9-3, 정문연, 1982, 721쪽.

통정 장군이 패한 후 제주는 오랜 기간 몽고의 식민지가 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김통정은 민중의 영웅으로 자리할 만 하다. 수많은 군인이 동원된 큰 성을 쌓았을 공사와 여몽 연합군의 치열한 공방전은 몽고와 관군에 대항하는 영웅의 모습이었다.

삼별초의 항거는 육지에서 들어온 여몽 연합군과 삼별초의 대항이었을 뿐 제주민의 무력동원은 기록되고 있지 않다. 훗날 몽고의 오랜 식민 속에서 제주민은 삼별초를 더욱 영웅시했을 것이다. 김통정의 영웅됨은 신성한 바위인 등경석과 연관되어 전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등경석은 제주민의 삶과 연관된 신앙이었다 일출봉을 오르던 이들은 등경석에 절하며 소원과 안전을 빈 것은 바위가 설문대의 힘의 위력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김통정 장군을 설문대할망의 등경석 유형담과 같이 연관짓는 것은 설문대의 위대함과 김통정을 등가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설문대가 巨神으로 제주민에게 실제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신앙적 대상이었다면 김통정은 역사적 인물이면서 여몽 연합군과 맞서 이겨낼 수 있는 현실적 힘의 소유자였다. 즉, 설문대할망 신앙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민중의 힘이 되었던 김통정으로 바뀔 수 있다. 이 같은 변이는 제주도 전역의 변이 현상은 아니며 성산 근방에서만 등경석과 김통정을 전설화하고 있다. 성산은 신화, 전설, 민담 생성이 활발한 설화의 형성지라 할만해 지역 연구를 제안해 본다.

2. 다른 설화의 화소로 바뀐 경우

2.1. 오백장군 설화

키자랑 하다 물장오리에 빠져 죽었다는 화소는 언제부터인가 죽 속에 빠

져 죽은 설문대할망으로 변이되어 함께 전하고 있다.

거녀인 설문대에게 500아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500아들의 아버지 존재는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할망이 허망하게 죽었다는 것과 그 어머니의 살과 피를 먹은 아들이 괴로움과 참회로 산 속에서 돌이 되었다는 것이 주 전승 내용이다.

화석으로 굳어졌다는 아들들의 이야기는 제주민의 가난과 어머니의 희생을 얘기한다. 화석이 되어버리는 예는 남편을 그리다 돌이 되었다는 망부석 설화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영실의 500장군이 화석이 된 것은 결국 인륜을 저버리게 된 죄의식 때문이었다. 어머니를 먹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지방에서는 예를 찾아 볼 수 없다.

설문대가 물장오리에서 죽었다는 것은 실족이었고 아들들을 위해 끓이던 죽 속에 빠져 죽었다는 것 역시 실족이었다. 실수로 빠져 죽었다는 것과 500이나 되는 아들을 낳은 이의 생산력이든 신장이든 거대함을 이야기한다. 죽음은 제주인의 가난함과 죽음 의식이 만들어낸 이야기이다.

‘키자랑·죽음’ 유형담에서 설문대할망이 물장오리에 빠져 죽었다고 전하는 화자들도 말을 전하면서도 그리 깊은 줄을 모르겠다며 그 죽음 자체를 의아해 하는 경향은 보인다¹⁰¹⁾. 신의 죽음은 설문대할망 설화 속에 재인식하는 과정에서 영실 기암의 500 어머니 이야기가 물장오리에서 빠져 죽었다는 것보다 합당하게 생각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오백장군 설화와 설문대할망 설화가 별개인데도 설문대할망이 오백장군 설화에 화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조건은 다음의 공통화소 때문이다.

설문대할망이 물장오리에 실수로 빠져 죽은 유형담이라면 변이형은 죽을

101) 설문대할망이 경허여도(그리해도) 죽은장오리에는 빠전 죽었다고 하니 죽은장오리가 원 그렇게 깊은가(깊은가) 모르겠어

『대계』 9-1, 앞의 책, 201쪽. 안용인, 용두동.

젖다 실수로 죽 속에 빠져 죽었다하여 의도하지 않은 죽음이라는 공통화소를 갖는다. 그러나 ‘키자랑·죽음’ 유형담이 장신인 설문대도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깊이를 갖고 있는 水源地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변이형은 500명이나 되는 아들들에게 먹일 죽을 끓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죽었다는 가난과 슬픔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영실의 큰 바위들은 모두 다 장군의 형상으로 그런 거대한 신장을 갖고 있는 장신의 부모는 설문대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변이형은 설문대할망 설화에서 큰 외모와 빠져 죽었다는 화소로 전이되었을 것이다.

영실은 한라산 남서쪽 등산코스인데 오르는 길목에 기암괴석이 있다. 영실 코스는 서귀포 관내에 있어 오르기가 쉽고 백록담까지의 거리도 가장 짧아 어리목 코스 다음으로 자주 등반된다. 靈室의 ‘室’은 골짜기의 옛말로 산신령이 사는 골짜기, 신불을 모시어 제사 지내는 신령스러운 곳이란 뜻이며 지금도 산신에게 치성 드리는 이들이 많이 찾는다. 이 영실 골짜기 벼랑가에 오백장군, 일명 오백나한이 솟아 있다.¹⁰²⁾ 사람처럼 서 있는 그 암봉 앞에서 욕을 하거나 큰 소리를 지르면 설문대할망이 갑자기 안개, 구름으로 산을 덮기에 언행을 바르게 하고 산을 타야 한다고 전한다. 이 기암은 500인의 형상으로 장군과 같다 하여 오백장군, 또는 부처의 500제자가 영취산에서 불법을 듣던 모습이라 하여 오백나한이라고도 하는데 산신을 신앙시키는 사람들은 또 산신이라 칭하며 지금도 산신기도를 드린다. 이 신령한 오백 나한은 죽어 기암이나 부처 등으로 轉化하여 그 생명을 지속하는 재생의식의¹⁰³⁾ 일종이라 볼 수 있다. 그만큼 영실에 있는 바위는 내뿜는 영기를 지니고 있어 지나가는 길손을 붙잡는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문제는 기암 이름으로 알 수 있는 기암의 존재 의미이

102) 김종철, 「오백 장군 오름」, 앞의 책, 295~299쪽.

103) 박규홍, 「재생설화의 재생의식」, 『구비문학』 6집, 1981. 71쪽.

다. 영실 기암은 오백장군 또는 오백나한¹⁰⁴⁾이라 불리는데, 오백장군¹⁰⁵⁾이란 칭호는 무속에서 모시는 신들 중 ‘대왕’, ‘장군’ 등의 호칭과도 상통하며 산신 곳곳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속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500나한은 고려시대 제주에서 불교가 뿌리내리는 과정을 유추케 한다.

영실은 한라산, 물장오리와 더불어 제주 삼대 聖所중 하나이며 옛 문헌상 이름은 天佛峰으로 되어 있어 고려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절인 존자암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존자암은 건립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없으나 大藏經 法住記에 16존자가 있어 불법 전파를 위해 각지로 나갔는데 제6존자가 900 아라한을 대리고 耽役羅州로 갔다. 이것은 耽羅의 이칭으로 생각되어 제주가 불도국이었다는 추정이 제기되었고¹⁰⁶⁾ 조선불교통사에 탐여나주를 사람들이 탐라라 하였다¹⁰⁷⁾고 전한다. 존자암은 17세기초 18세기 사이 제주에서 불교가 쇠퇴하기까지 영실의 오백나한과 더불어 불교의 신심을 키우던 장소일 가능성이 있다.

500나한은 전 도적으로 볼 수 있는 광포 설화다. 500도둑이 부처의 깊은 뜻에 감동되어 부처의 제자인 나한이 되었다는 얘기는 제주이외에도 한반도에서 전반적으로 전하는 얘기다.¹⁰⁸⁾ 대체적인 내용은 길 가던 중이 배가 고

104) 아라한을 이르며 소승불교에서 최고의 수행자로 공덕이 구비된 학자인 阿羅漢을 일컫는다.

105) 산신굿중 구좌읍 평대리 신방 高奉仙 (남, 70세)이 오백장군, 오백선신이라 이름하고 신을 청하고 있다. 이것은 무속에서 신적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이 산압은 堂 五百 / 저산압은 절 五百 / 五百將軍 五百선신 / 어시성 백녹담 / 아흔아홉골입내다./

장주근, 「제주도여신고」, 앞의 책, 36쪽.

106) 김봉옥, 「존자암의 위치」, 『제주도사 연구』 창간호, 1991, 31~32쪽.

107)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1918. 김봉옥, 앞의 책에서 재인용.

제주대학교 박물관, 『존자암지』, 1996, 33쪽.

108) ‘오백나한의 유래’, 『대계 2-5』 (강원편), 1983, 132~134쪽.

‘지장보살과 오방신장’, 『대계 7-8』 (경북편), 1983, 1142~1146쪽.

‘운문사 오백불상의 유래’, 『대계 8-8』 (경남편), 1983, 560~562쪽.

파 남의 밭에 있는 곡식을 훔쳐먹자 노스님이 그 중에게 많은 밥을 지어 길 가는 이들을 불러 배불리 먹이라고 한다. 중은 밥을 지어 먹었고 불법에 감화한 도둑들이 함께 부처의 제자가 되었다 한다. 그러나 영실의 오백나한은 500인이 도둑질 했다는 것만이 같을 뿐 나머지는 차이를 보인다. 중이나 스님대신에 500인의 어머니인 설문대가 등장하며 불법에 감동하여 나한이 된 경위도 어머니의 육신을 먹었다는 죄 때문이다. 즉, 오백나한 설화는 불교가 제주민속에 들어와 융화되는 과정을 알려 주는 설화로써 그 직접적인 계기가 자식이 어머니의 고기를 먹었다는 패륜적 죄의식이다. 가난한 제주인에게 부처의 자비를 일깨워줄 수 있는 이야기가 어머니의 죽음을 매개로 하고 있다.

영실의 오백 장군이 영실을 찾는 이들에게 두려움과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기암들 때문이지 설문대가 아니다. 이점은 설문대가 신앙대상에서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오백 아들로 몸을 바꿔 숭상시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오백장군이 아니라 499장군으로 미완성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아도 알 수 있다. 99미완의 홍미화소는 지배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백 아들 중 막내의 화석은 한라산을 바라보며 선 자세로 499 형들과 멀리 떨어져 혼자 바위가 되었다. 두 가지 얘기가 전하는데 하나는 제주도 서쪽 끝 섬, 차귀도의 ‘將軍石’으로 한라산 서쪽 등성이를 타고 멀리 내려와 바다에서 굳은 化石이다. 또 하나는 한라산 남쪽 등성으로 내려 서귀포 앞 바다에서 굳어진 ‘외돌괴’가 있다.

외돌괴가 되었든 차귀도의 장군바위가 되었든 영실 바위가 500에서 1개 모자란 499개라는 점은 차이가 없다. 連陸橋놓기 유형담에서도 1개의 모자람을 드러내주는 것과 같다 하겠다.

3. 변이 유형의 의미

3.1. 행위의 주체가 바뀐 유형

앞에서는 유형담중 변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조형 형성, 솔바리, 등경석, 죽음에서 드러났다. 조형 형성, 솔바리, 등경석은 행위의 주체가 설문대에서 다른 이로 바뀐 경우다. 변이 요인이 산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일 경우, 설문대할망은 옥황상제나 해님으로 변이되었고 큰 바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으로는 장군 그리고 큰 바위를 들어 기암 위에 얹어 놓을 수 있는 장신의 거인으로 김통정 장군을 삼고 있다. 이 내용을 [표14]와 같이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14] 행동 주체의 변이 비교

| 주체자 | 증거물 | 성별 | 장신 | 힘 |
|----------|-------|----|----|---|
| 설문대 | 산, 기암 | 여 | ○ | ○ |
| 옥황상제, 해님 | 산, 오름 | 남 | x | ○ |
| 장군 | 기암 | 남 | ○ | ○ |
| 김통정 장군 | 기암 | 남 | ○ | ○ |

설문대할망 설화는 원래 신화에서 변이 발전된 형태이기 때문에 민중에게는 신적 믿음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옥황상제, 해님의 변이는 인간과 만물을 주관하는 신적 존재가 되어 민간신앙으로 흡수됨을 보인다. 또한 장군, 김통정 장군은 현실적 힘을 갖고 있는 인물로 신적 존재가 되기보다는 장군이 이끌 수 있는 군대 동원력, 용기, 의지 등은 육체적인 큰 외모나 힘보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한 정신적인 큰 인물을 섬기고 영웅시하고 있다. 따라서 설문대할망 변이는 민간신앙과 영웅의 갈망으로 정리할 수 있다.

3.2. 다른 설화의 화소로 바뀐 유형

설문대할망 죽음 유형담 중 변이형에 해당한다. 이 변이형에서 설문대할망은 사냥 나간 아들들을 기다리며 죽을 쭈다가 실수로 죽에 빠져 죽은 평범한 어머니이다¹⁰⁹⁾. 어머니의 고기를 먹었다는 것을 나중에 안 아들들을 500장군 또는 500나한이 되었다.

한라산 영실에 있는 큰 바위들을 오백장군 또는 오백나한이라 하는데, 오백장군, 산신이라 칭하며 이처럼 바위를 신성시 여긴다. 지금도 오백기암은 기도 드리는 이들이 찾아 든다. 이처럼 바위를 신성시하는 것은 만물에 신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 신앙 형태로서 설문대할망 신앙이 무속적 산신 형태로 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500나한은 설문대할망 신앙이 쇠퇴가 불교의 영향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오백장군이든 오백나한이든 기암을 신성시하고 섬기는 것은 기암의 수호신화 하기 때문이다. ‘키자랑 · 죽음’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둘 다 확인할 수 있었다면 변이형인 오백장군 설화에서는 다리놓기에서 생긴 부정적인 인식이 불교의 매개체와 무속의 산신으로 새로이 부활함을 볼 수 있다.

근래 발간된 제주 설화 소개서에서도 설문대할망의 애매한 죽음을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오백장군 설화의 화소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설문대할망이 오백 아들을 낳았고 죽 속에 빠져 죽었다는 설문대할망 설화 속에 오백장군 화소가 변이되어 존재한다¹¹⁰⁾. 설문대할망의 부활 의지는 90년대 들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109) 일설에는 설문대가 죽 속에 빠진 이유를 어느 해 지독한 흉년에 먹을 것이 없자, 아들들이 굶는 모습을 보다 못한 어머니가 자신의 몸을 던진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처럼 어머니의 의도적 희생으로 전하는 각편은 드물다.

110) 유홍준, 『한려수도와 제주도』, 한국문화유산답사회, 1998, 260~261쪽.
제주도, 『제주의 민속』 III, 1995, 35~36.

V. 설문대할망 설화의 문학적 변용

구전설화의 전승력은 구연에서 문자를 통한 문헌으로 이행되고 있다. 선행에 의해 채록 설화는 다시 글로 옮겨져 관광지, 고장 소식지, 관지, 문학서 등을 통해 재 수록되고 있다. 그 결과 설문대할망 설화는 채록을 바탕으로 일정한 형태로 정해져 가고 있다. 현대의 설화 매개자는 설문대 설화를 일반에게 널리 알릴 목적으로 글을 쓰는 이들이다. 이들은 설문대의 죽음을 나름대로 해석, 설명하기도 하고, 오백장군 설화와 한 가지로 보아 남편과 아이들을 적절히 연관짓기도 하며 설문대의 큰 키를 알려 주는 각 편을 나름대로 서술의 순서로 재해석하고 있다.

본고는 설문대할망에 대한 문학적 변용을 볼 수 있는 자료로 구전 아동동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러 서술을 통한 양상과 바라보는 관점이 주 관심 대상이 된다.

1. 전래 동화에서의 양상

전래 동화는 아동에게 맞도록 쉽게 풀어 쓴 아동 문학이다. 설문대할망 설화는 서사적 줄거리가 없기 때문에 동화로 옮기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연관이 명확하기 않은 각 유형담을 어떻게 전개시킬 것인가는 동화 편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편집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가는 내면에 수용된 설문대할망에 대한 평소 의식과 상상력을 내용 전개에서 직접 드러낸다는 점이 주목된다

자료로는 제주도 출신 작가가 펴낸 『제주도 이야기』 211) 『민족 전래 동화』 112), 『제주도 전래 동화』 113) 그리고 도 외 작가의 『한국전래 동화』 3

111) 현길언, 앞의 책, 27~30쪽.

112) 장영주, 앞의 책, 15~18쪽.

6114)과 『세상이 생겨난 이야기』를¹¹⁵⁾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제주 출신 작가의 유형담 전개는 다음과 같다.

『제주도 이야기』의 전개순서는 발뻘고 잠자기 → 지형 형성 → 빨래하기 → 連陸橋놓기로 이어진다. 발뻘고 잠자기, 지형 형성, 빨래하기에서 할망의 큰 키를 설명하였고 빨래하기의 연장으로 큰 키 때문에 옷도 커야한다는 이야기를 전개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옷 한 벌을 해주면 다리를 놓아주마 한 連陸橋놓기로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큰 키, 큰 빨랫감, 옷 한 벌을 해주면 다리를 놓아주겠다’는 약속’ 이야기는 나름의 서술 구조를 갖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전개는 『민족전래동화』, 『제주도 전래동화』에서도 볼 수 있다. 『민족전래동화』는 ‘발뻘고 잠자기 → 빨래하기 → 지형형성 → 등경석 → 連陸橋놓기 → 키자랑 · 죽음’이고, 『제주도 전래동화』의 경우 ‘지형 형성 → 발뻘고 잠자기 → 빨래하기 → 등경석 → 連陸橋놓기 → 키자랑 · 죽음’으로 전개된다. 이 두 자료는 『제주도 이야기』에 비해 바느질하는 설문 대할망 이야기를 통해 옷도 커야 한다는 서술고리로 連陸橋놓기와 연관 짓고 있다. 그러나 巨衣라는 모티프의 동일성을 보이지만 連陸橋놓기의 실패가 할망의 죽음으로 결론지음은 차이를 보인다. 죽음의 이유 역시 목욕하다 실수로 빠져 죽었다거나 자신의 큰 키를 스스로 원망하다 물에 빠져 죽어버렸다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다.

반면 제주도외 작가의 편집인 『한국전래 동화』 36과 『세상이 생겨난 이야기』의 서술구조는 다음과 같다.

『한국전래동화』인 경우 제주도내 작가와 구별된다. ‘발뻘고 잠자기 →

113) 박재형, 앞의 책, 18~25쪽.

114) 강태형, 『한국전래동화』 35, 웅진출판사, 1989, 2~31쪽.

115) 김장성, 『세상이 생겨난 이야기』, 사계절, 1998, 97~111쪽.

지형 형성 → 連陸橋놓기 → 키자랑·죽음'이고 『세상이 생겨난 이야기』는 '지형 형성 → 빨래하기 → 발뻘고 잠자기 → 連陸橋놓기 → 키자랑·죽음'으로 서술된다. 連陸橋놓기의 자연스러운 서술 매개인 巨衣 모티프를 갖고 있는 '빨래하기'나 '등경석' 설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과 할망의 죽음을 산신령과 수호신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전래 동화에서 역시 連陸橋놓기와 죽음을 연관짓고 있으며 서술 매체는 巨衣모티프다. 巨衣 모티프는 빨래하기와 등경석의 화소로써 제주도 출신 작가는 '빨래 또는 등경석 → 連陸橋놓기 → 죽음'으로 서술구조를 갖는 반면 제주도의 출신 작가는 죽음을 미화하고 있어 巨衣 모티프는 강한 서술 매체가 되고 있지 않다.

또한 10가지 유형 중 '1.3. 한걸음에 섬 가로지르기', '1.5. 사냥, 고기 잡기', '2.1. 모자', '2.2. 술걸이'는 편집에서 제외되고 있다. 각주36)에서 유형담빈도에서 가장 적은 것부터 나열하면 술바리, 모자, 등경석, 한 번에 섬 가로지르기, 사냥, 고기잡이였다. 이 같은 빈도 수는 동화 편집에서도 나타난다. 등경석을 제외하고는 편집 시 제외되었다.

連陸橋놓기와 죽음의 상관성은 동화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 설문대 할망의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전래 동화』 36은 거짓말을 경계하라는 주제를 담고 있어 할망은 다리놓기를 중단하고 산으로 들어가 산신령이 되어 산을 오르는 사람중 약속을 어기는 이는 돌보지 않게 되었다 한다. 또, 『세상이 생겨난 이야기』는 제주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자 몰래 제주를 떠났는데 언제나 제주인과 함께 하는 수호신이 되었다고 하여 할망의 죽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도외의 시각은 설화를 미화하고 있으며 오백장군의 이야기는 별도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같은 죽음 유형담을 두고서 제주 출신 작가는 인간적 죽음으로, 도외 작가는 수호신이 되었다고 편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편으로 전하는 설문대할망 설화일지라도 제주 설화를 대중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는 이들은 필요에 의해서 한편의 이야기로 새롭게 만들기도 한다. 주로 관지나 마을지에서 제주의 설화를 소개하는 책자 그리고 제주 민속지, 개인 창작집, 아동 동화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VI. 결론

설문대할망 설화는 제주도를 창조한 창조신화였으나 신성성을 상실하고 증거물 위주의 전설과 희화된 민담으로 전승되어 설화의 여러 층위가 섞여 있다. 전승 양상 또한 간단한 일화들의 나열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분석을 위해서는 자료를 유형화하고 제주도의 역사, 지리, 기후, 취락 등을 고려하며 전승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녀 神話가 전설, 민담화할 수 있었던 조건을 검토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변이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0가지 유형담중 連陸橋농기와 죽음간의 연관성이 제주 설문대할망 설화의 전승과 변이에 중요 화소가 되었다는 것과 아동 전래 동화에서 역시 다리 농기와 죽음의 문제가 설화 인식의 중요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II장에서는 설문대할망 설화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주 전승 요인이 행위 위주냐, 아니면 증거위주냐에 따라 ‘행위담’과 ‘증거담’으로 분류할 수 있다.

행위담으로는 지형 형성, 발뻘고 잠자기, 한걸음에 섬 가로지르기, 빨래하기, 사냥·고기 잡이, 連陸橋농기, 키자랑·죽음과 증거담으로 족두리석, 술걸이, 등경석이 있다.

III장에서는 II장에서 나눈 10가지 유형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지형 형성’에서 설문대할망은 제주도의 산, 오름, 섬 등을 만들었다. 이 유형담은 한라산을 구심점으로 점점이 흩어진 오름 군의 위치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계속된 화산활동으로 일어났던 지진 등의 지형 변화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거인이 한라산을 향해 오르내리며 흙을 운반하던 모습으로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위유형담 중에서 거인의 배설로 섬이 되었다는 우도 유래담은 거인설화의 변이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우도 유래담은 주로 성산을 중심으로 구전되고 있는데 성산 지역은 신화시대가 이미 끝난 고려 이후 생성된 취락이다. 따라서 구전 취락의 역사가 신화시대 이후라는 것과 거인의 지형창조가 배설로 생겼다는 희화적 민담과는 상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밖에도 고려시대 생성된 섬인 경우 섬이 혼자 떠 왔다고 인식을 보인다.

‘발뺏고 잠자기’에서는 제주 지형의 생김새를 설명하고 있다. 동서로 긴 오름군을 거느린 한라산은 정북, 정남인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만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는데 설문대할망의 잠자는 방향 역시 한라산에 머리 두고 정북, 정남 방향이어서 제주인의 삶의 거주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예전부터 적지였음을 알게 한다. 또한 산에 머리를 두고 바다를 향해 잠을 자는 설문대할망은 죽어 오름에 묻혀 바다를 향해 영원한 잠을 청하는 제주민의 삶과 같다.

‘한 걸음에 섬 가로지르기’는 설화 전승지에서 한라산까지 또는 제주에서 추자도까지 한 걸음에 이동할 수 있는 설문대할망의 큰 키를 이야기하고 있어 제주민의 오랜 시, 공간 초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빨래하기’는 제주도를 발 사이에 두고 먼바다에서 빨래했다는 일화들이다. 이 행위담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빨래하는 방향과 제주 강수량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다. 빨래하기 유형담은 제주 전역에 분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망은 제주 서쪽 바다에서 빨래했다는 각편은 유독 전하지 않는다. 서쪽은 제주도의 사면 중 가장 강수량 적은 곳이기에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거인이 빨랫감에서 떨어지는 물과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을 함께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제주의 오랜 생활고 중 하나였던 물 부족 문제를 설문대할망을 통해 투영하고 있다. 설문대할망은 늘 넓은 대양에서 빨래를 했으므로 물 부족 문제와 좁은 섬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었던 대상이었던 것이다.

‘사냥, 고기 잡기’는 민담화된 대표적인 유형담에 속하며 민담화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이 유형담의 전승지는 서쪽인 성산 일대 위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산은 지역의 특성상 북쪽인 다른 지역에 비해 취락 형성이 비교적 늦은 편으로 신화시대가 끝난 것으로 보는 고려시대 이후에 생성되었다. 따라서 민담화는 신화시대 이후에 일어난 일 이기에 가능하다.

‘連陸橋놓기’는 설문대할망 설화의 주 전승 내용이다. 설문대할망은 섬주민이 옷을 만들어주면 다리를 놓아주마는 약속을 했으나 옷감 1통 부족으로 결국 다리를 놓아주다 말았다.

다리를 놓아주지 않은 할망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양극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긍정적인 경우, 할망이 다리를 놓아주었다면 한반도의 환란과 사나운 짐승이 도내에 들어와 사람살기가 더욱 힘이 들어졌을 것이므로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하는 반면, 부정적인 경우는 결국 설문대할망은 자신의 교만한 성격으로 큰 키를 자랑하다 물장오리에 빠져 죽었다 하여 巨神으로의 면모가 사라짐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증거담으로 지역 전승 위주의 편중성을 보여 전승력이 행위담보다 떨어지며 전승 요인 역시 설문대할망의 소유물이다. ‘족두리석’은 설문대할망이 쓰던 모자로써 빨래하다 떨어진 것이며, ‘솔바리’는 밥을 해먹던 도구이고, ‘등경석’은 저녁에 바느질할 때 쓰던 등잔이다. 이들의 전승 근거는 모두다 奇巖의 생김새 때문이다. 모자는 족두리처럼 생겼고, 솔바리는 品字形으로 솔걸이처럼 보이며, 등경석은 등잔의 키를 놓이고자 하나 바위를 더

엮은 겹바위 형상이다.

IV장에서는 변이를 보이는 유형담중에서 그 변이의 양상과 의미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변이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설화 행위의 주체가 설문대할망에서 다른 대체자로 바뀐 유형이고, 두 번째는 설문대할망 자체가 다른 설화의 화소에 속하는 변이 유형이다.

첫 번째 변이는 ‘지형 형성’, ‘술바리’, ‘등경석’에서 일어났다. 이들의 변이 요인은 산이나 큰 바위를 움직일 수 있는 존재로 옥황상제, 해님과 남자 거인, 장군으로 나타난다. 옥황상제나 해님은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설문대할망 신화가 전승지역에서 민간신앙으로 흡수됨을 보여주고 있으며, 장군인 경우 보다 현실적인 힘을 갖는 대상으로서 민간영웅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설문대할망은 거인이라는 비현실적인 면모를 보다 현실적인 민간신앙과 민중 영웅의 갈망으로 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변이는 설문대할망이 500장군의 어머니로 등장하는 오백장군 설화다. 500이나 되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큰 여인이면서 죽에 빠져 죽은 오백 장군의 어머니 격으로 설문대할망은 적합한 화소가 되었다. 큰 키와 죽음의 방식 역시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백장군 설화에서 설문대할망은 아들들이 기암으로 굳어 오백장군이 되어 산에 오르는 이들에게 수호신으로 자리하게 하거나, 오백나한이 되어 부처님의 불법을 제주에 뿌리내리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오백장군 설화에서는 물장오리에서 죽은 설문대가 새롭게 부활하여 무속의 산신이 되거나 불교의 매개체로 자리함을 볼 수 있다.

V장에서는 아동에게 맞도록 쉽게 편집된 제주 전래 동화인 경우, 설문대할망 설화가 작가의 인식에 따라 어떻게 서사적 줄거리를 형상화되고 있는지 양상을 검토하고자 했다. 전래 동화에서 문제가 되는 것 역시 유형담에

서와 같이 ‘連陸橋놓기’와 ‘키자랑·죽음’이 함께 상관성을 갖고 제시되고 있었다.

제주 출신 작가들은 설문대할망이 다리를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물에 빠져 죽었다는 비관적 인식으로 목욕하다 빠져 죽거나 큰 키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道外 작가인 경우, 죽은 다음 산신령 또는 수호신이 된 것으로 동화는 결말을 맺는다. 이것은 보다 동화적 행복한 결말을 맺고자 하는 작가적 의도적 해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문대할망 설화는 구전산문으로 전승되는 제주의 문화유산이다. 설문대할망의 다양한 유형담을 통해 설화를 구전 전승해 온 제주인의 현실 인식법, 삶의 소망 등을 할망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동안 할망이 제주도를 만들었다는 창조 행위가 설화 전승의 주요인으로 유추되었다면 자료 분석 결과 큰 키보다 連陸橋놓기와 죽음으로 이어지는 바람과 절망이 전승의 주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절망은 변이형에서 오백장군과 오백나한으로 부활하여 있다. 그러나 지금도 제주인들에게 설문대할망은 수호적인 존재와 더불어 다리놓기를 중단해 버린 지리적 장애로 인식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 자료 >

- 강태형, 『한국전래동화』 35, 웅진출판사, 1984
- 김장성, 『세상이 생겨난 이야기』, 사계절, 1998
- 박재형, 『제주도 전래동화』, 대교출판, 1990
- 성산 국민학교, 『성산』, 1987
- 오라 국민학교, 『오라』, 1987
- 오성찬, 『마을시리즈: 애월리』, 반석출판사, 1987
- 『마을시리즈: 한림리』, 반석출판사, 1987
-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9, 평민사, 1992
- 장영주, 『민족전래동화』 6, 아동문예, 1991
-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 『풀어 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8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 10, 11, 1994, 1995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10, 12, 1989, 1994
- 현길언, 『제주도이야기』 2, 창작과비평사, 1984
-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당, 1976
-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1, 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1981
- 현용준·김영돈·현길언, 『제주설화집성』 (1),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5

< 단행본 >

- 고창석, 『탐라국사료집』, 신아문화사, 1995
-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문화, 1987
- 김태곤, 『한국민간신앙연구』, 집문당 1983
- 김종철, 『오름 나그네』, 높은 오름, 1995
- 大林太良(권태효 역), 『신화학입문』, 새문사 1996
- M.엘리아데(정진홍역), 『우주와 역사』, 현대사상사, 1976
- 북제주군, 『북제주』 79호, 1998
- 소재영, 『한국설화문학연구』, 숭실대학교출판부, 1984
- 오성찬, 『제주의 마을 시리즈: 한림리』, 반석출판사, 1987
- 오홍석, 『취락지리학』, 교학사, 1982
- 유홍준, 『한려수도와 제주도』, 한국문화유산답사회, 1998
- 이규현외, 『한국민속학개설』, 학연사, 1985
-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영신 아카데미, 1977
- 임재해, 『설화작품의 현장론적 분석』, 지식산업사, 1990
- 장한철(김병옥역), 『표해록』, 범우사, 1976
- 제주대학교 박물관, 『북제주군의 문화유적』 II, 북제주군, 1998
- 『존자암지』, 1996
- 제주도, 『제주의 민속』 III, 1995
- 제주시 제주문화원, 『제주시 옛지명』, 1996
- 조동일, 『우리 문학의 만남』, 홍성사, 1978
-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 부록』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
실, 1989

조효순, 『한국복식풍속사연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8

최래옥,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 1981

프레이저(김상일역), 『황금의 가지』 上, 을유문화사, 1996

한상수, 『한국의 신화』, 문음사, 1980

향토지 발간위원회, 『서흥로』, 1996

허춘, 『한국문학의 통시적 성찰』, 집문당, 1993

< 일반 논문 >

김용덕, 「단군신화와 신선사상의 연원」, 『한국민속학』 17, 1984

김태곤, 「무속과 불교의 습합」, 『한국민속학』 19, 1986

강승삼, 「제주도 지형, 지질연구의 과거·현재와 전망」, 『제주도연구』
4집, 1987

강진옥, 「<마고할미>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 25,
1993

권태효, 「거인설화의 전승양상과 변이유형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논문,
1997

——— 「거인설화적 관점에서 본 산이동 설화의 성격과 변이」, 『구비문
학』 4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1979

김남연, 「한국창세신화 유형담과 그 변이」, 연세대 석사 논문, 1996

김봉옥, 「존자암의 위치」, 『제주도사연구』 창간호, 1991

김영경, 「거인형 설화의 연구」, 이화여대 석사 논문, 1990

박규홍, 「재생설화와 재생의식」, 『구비문학』 6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
문연구실, 1981

소재영, 「제주지역 설화문학의 비교연구」, 『송실어문』 11, 1994

- 오홍석, 「범선 항해시대의 濟·京해로」, 『제주도연구』 1집, 1984
- 이성준, 「설문대 할망 설화 연구」, 『국문학보』 10, 1989
- 인동권, 「설문대 할망 설화考」, 『제주도』 17, 1964
- 장덕순, “문학예술편”, 『한국사상대계』 I,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3
- 장주근, 「제주도 여신考」, 『제주문화』, 전국문총제주지부, 1959
- “언어문학사 下”, 『한국문화사대계』 V,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67
- 「제주도 천지창조설화의 문화영역성」, 『제주도』 38, 1969
- 『풀어 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8
- 강만익, 「제주도의 기후성격」, 『탐라지리교육연구』, 탐라지리교육연구회,
1998
- 현승환, 「섬이동 설화고」, 『제주도연구』 7, 1990
- 현용준, 「한라산에 얹힌 전설과 신앙」, 『제주도』 44, 1969
- 「삼성신화연구」, 『탐라문화』 2집, 1983

[Abstract]

A Study on The Narrative about Seol-Mun-Dae Halmang

Mun Young-Mi
Department of Korean Education
The Educational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eol-Mun-Dae Halmang is the Goddess who has created the Che-Ju Island. She is the Giant Goddess of the Creation of practical topography of the Che-Ju Island, such as Hal-la mountain, O-rums(kind of parastic volcanos), islands and curious rocks, and had been a object of popular belief. But, today, the narrative about her has lost the holiness of mythology, has been handed down as a regional legend. In addition, the handing down of the narrative consists of simple episodes, and simple and short. The episodes has been recreated region by region, and so there are no stories that have relation of them.

For those features of narrative itself, it has been studied only general features of narrative, like as meaning as mythology, the process of being legend and narrative about the Giant, and there has not been studied about the narrative itself about Seol-Mun-Dae Halmang. Therefore, this paper will search the meaning and the value of transmission as regional legend, and aims to the substantial study of the narrative itself about Seol-Mun-Dae Halmang. For those purposes, this paper examines the appearance of regional transmission and its meaning of each episodes, and also considers the appearance of regional variation, which is being done in these days, and modification to literature.

This paper has classified each episode by its story. The principles of classification are as following.

If the cause of transmission of the narrative is the Goddess action, it is been classified as action story, else it is simple evidence, then is been classified

evidence story. Each classified story is also more classified to 10 sub stories, such as the creation of topography, sleeping with stretched out her legs, going across island by one trace, washing clothes, hunting and fishing, building the bridge to land, self-praise of her height and her death, Jok-Duri stone, rice kettle, and lamp pole stone.

The meaning of transmission of each classified stories, and the value are also been studied, considered history, geography, weather and community of the Che-Ju Island. By the study, among the 10 sub stories, building the bridge to land story has been identified as a typical transmission type. In positive case, it is said that as the Goddess had not built the bridge to the land, Che-Ju Island has been guarded from disaster. But, in negative case, for her arrogance, she had died of being fallen into the lake in mountaintop shallower than her height.

The following stories, such as the creation of topography, self-praise of her height and her death, rice kettle, and lamp pole stone story, are appeared as changed in handed down regions. In that variation, the Goddess is changed as the God, the Sun and the General, and so the non realistic giant woman is replaced as popular hero who has substantial power, or she becomes as the mother in 500 generals narrative. In that narrative, she made her 500 sons to 500 generals in totemism or 500 disciples of Buddha, so she has survived to the Mountain God in totem or mediums of Buddhism.

The typical case of literary variation is the traditional korean tale for children. For the feature of traditional tale itself, the writer rewrites the narrative with his or her recognition and imagination. But, also in the traditional tale, the relation of building the bridge to land and self-praise of her height and her death is identified. So, it is recognized that Seol-Mun-Dae Halmang, the Goddess, has been handed down as complex concept to the Che-Ju islanders. She has two faces of being guardian and producer of topographical hindrance. And Che-Ju islanders, who has not necessarily considered the Goddess as guardian only, trace of historical and geographical life with God is also verified.